

글 열음

제 23회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목차>

1. 시	1
2. 소설	29
3. 비평	79

<시>

11 김홍인	3
15 김용섭	6
16 변진희	9
14 박은지	11
15 김효정	12
15 노이지	13
15 이인혜	16
15 이윤지	19
16 류정은	22
16 이해진	25
16 최유정	26
16 최유진	27

<소설>

15 이윤지	31
11 김홍인	38
11 김주성	45
16 김원목	53
16 남윤진	60
16 이단비	66
16 임찬영	73

<비평>

16 김예지	81
16 임찬영	86
16 김영운	91
16 이단비	96
16 이해원	100

✱

詩

<시 부문 최우수 수상작>

화이트의 모스부호

김 홍 인

노크노크노크

간밤의 배수구에
흘려보낸 것들이
말을 거는 소리

우리가 없었다면 넌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자물쇠로 잠근 다이어리가
소각장에서 내는 소리

불빛에 당당히 새겼던 다짐이
제멋대로 편집되어 기어오르면
가위에 목 졸려
눈을 감지도 못하고 밤을 샌다

낙하하는 방식이 익숙하기라도 하면
적응이라도 하지
소름끼쳐 감기에 걸리고

기침은
또다시 노크하는 소리
화장실에서 배달 온
부모님의 청첩장

너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새 삶의 기회
클렌징오일을 욕조가득 받아
몸을 뉘운다

살아남는다면
상괘함에 신열이 나겠지
내 삶 위에 발랐던 것들을
모두 닦아내는 거야

눈이 없으면 웃는 것처럼 보이니까
노크노크노크

생명줄 타기

김 홍 인

나는 녹이 손 난간을 조립하는 렌치
그날그날의 책임을 돌리고
태아 때의 떨림을 기억해낸다

누군가와 스치는 일상조차 두려운 고층

옷 위에 걸은 안전고리지만
작은 부딪침에도
탯줄처럼 민감하고

지하에서부터 이어져 오른 빈혈기
생명줄을 끊는다면
이 어지럼이 좀 나을까

갈라진 손바닥에선
벗겨진 근로계약서가 자꾸 훑날리고
사인하는 매일이 점점 무뎌진다

김치물 매니큐어

김 홍 인

언젠가는 이 손톱을 다 뜯어 먹어 버릴 테다
특히 엄지는 싸구려 캔 뚜껑 같아서
널찍한 게 질경질경 씹/기에도 벅차고
액세서리 마냥 모으기도 애매하다

아버지의 김장김치는 너무 짜다
특히 엄격한 규칙과 효도에 따라 내 손을
김치물로 물들일 때면
난 소금대신 손톱을 갈아 넣어버린다

부드러운 젓가슴이 궁금하다
아버지의 젓가슴은 친구네 아주머니 보다 커다랄지만
그 젓꼭지는 달지도 않고 화장품 맛이 난다
내 친구는 아직도 젓가슴을 만지작거린다는데

김장이 끝나면 친구들과 목욕탕에서 짠 내를 뺀다
털이 난 다리가 싫어
반바지를 안 입는다는 친구
나중에 결혼하여 내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내겐 가슴 큰 아버지 밖에 없는데
그녀석도 김치물이 들었는지 손이 빨강다

질경이는 손톱의 물이 아직도 다 안 빠졌는지
짜다
목욕탕의 새 친구를 위하여
평소보다 몸을 더 끓이자
어디선가 절여온 손끝의 그을음이 모두 빠질 때까지

연착

김 용 섭

어떤 정리는 새로운것이 생겨나면서 시작됐다

아무런 결심조차 할 수 없었던
늦어진 정리가
통통불은 맘을 지고 쏟아내는 기차칸들처럼
지친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습한 숨결과
소란한 이야기들이
철로의 끝에 다다라서야 소리를 낮추고
늦어진 날짜만큼

그래도 그날은
잠깐 깨어나는 촉각이 기분나쁘지않은 날들이어라

열차칸은 철길을 타고
철길은 기억을 따라가

어떤 정리는 새로운 태어남으로부터 시작됐다

기념일

김 용 섭

침묵하던 날들은
기어코 뱉고싶던 조각들과
무겁게 가라앉은 침전물이 되어
덩어리 체로 삼켜야 했다
단지
홀로 발자국을 네 번 남기며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나는 가득했고
뒷모습만 보며 걸어도 향기로웠다
넘치지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감정을 담았다

문득
내 발자국보다
네 발자국이 외로웠다
오늘에서야

그러나 전혀,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날이었다

등장인물

김 용 섭

검은 물결이 오르고
고요하게
발소리만 모여있었다

누군가는 몰려 있기도 했다
누군가는 홀로 외쳤고
누군가는 누가 듣기를 바라며 외쳤을 것이다
질문조차 하지않는 그들에게는
어떤 외침이라도 닮아있었을 것이다

나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개워내길 바랬다
그래서
우는 마음으로 무표정을 연기했다
우는 마음으로 무표정을 말했다

나를 깨우는 일에 시간을 다 써버리고나면
그제야 보이는 잔해같은 조각들은
이토록 가득히 찬 조화로움속에서
유일한 불협화음이 되었다
화장을 지워내도
지울 수 없는 내 이야기였다

<신입생 특별상 수상작>

현실의 무게

변 진 희

떠오른다
그리고 떠오른다

살금 바람에도
몸이, 마음이 흔들리는
주체 못할 떠오름

이제 그만
발을 붙여라
더 이상
가벼워지지 마라

녹색머리

변 진 희

눈이 부시다
이불에 몸 비비는 별이

햇빛 든 내 머릿속은
무지의 씨앗
어떻게 클지 알 수 없어도
오늘의 나는
녹색머리

부지런한 나뭇잎소리 같은
언제나 편안한 이 침대 같은
푸른 내가 되고 싶다

에드벌룬

박 은 지

보고싶은 밤
여지없이 생생하다
빈틈이 의심을 만들고
시작되는 의심이 틈을 넓힌다
대체할 수 없는 공간을 메우지 못한 채
크게 늘려만 가는 마음은
단단한 반석이 못되어
쭈그러진 에드벌룬으로 두웅실
저 편의 우주로 날고날아
평하고 터지면
떨어지는대로 흘러가는대로
내 맘은 하나도 없이

가로등

김 효 정

새까만 밤이 내리기 전까지
너는 없는 존재인 듯 조용하기만 하다.
색감 가득한 세상에서
너 홀로 동떨어진 것처럼 회색이다.

밤이 내리고,
달이 비치고,
별이 반짝일 때,
너는 느지막히 깜빡! 하고
누런 빛을 낼 뿐이다.

어쩐지
그 모습마저도 초라하다.
가게 간판에,
자동차 불빛에,
꺼지지 않는 불빛들에 의해,
너는 밤이 되어서도 눈에 띄질 않는다.

언젠가
너는 교복을 입고 돌아오는 새벽
골목에서 나를 마중 나온 일이 있었는데,
밤길이 무섭지 않아서 좋았었다.

추억 속
흐린 불빛 아래
사랑했던 연인과의 키스를
대신 간직해준 너에게 고마웠다.

술에 취해 돌아오던
무거운 아버지의 발걸음을
걸음걸음 비춰준 너이기에.....
매일 밤거리를 수놓는 네가
나는 가장 아름답다.

별 하나

노 이 지

얼마나 걸었을까.
무심코 올려다 본 밤하늘에
거짓말처럼 별이 비가 되어 내리고 있었다.

저항 할 틈도 없이 나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넘실넘실 일렁이는 바다 속을
헤엄치는 도중
그만 별 하나가 내 눈으로 스며들었다.

우연히 내 눈에 스며든 별 하나는
누군가의 소원이며
숨기고 있던 나의 마음일수도.

이제는 바다 속 깊은 곳에 가라앉은 별 하나.
분명 보이지 않는데도
마음이 자꾸 울렁이는 것은 비를 맞았기 때문일까.

왠지 내일은 기분 좋은 감기에 걸릴 것만 같다.

실

노 이 지

실로 이어진 끈질긴 만남.
아무리 끊으려 애써 보아도
점점 더 팽팽히 목을 조여 올 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엉키기도 하며
끊어지기도 하는 게 바로 실의 운명.

여기 저기 서로 엉켜버린 수많은 실들은
과거의 매듭을 풀기 위해 아우성친다.

인간에 의해 무참히 끊어진 실들은
가야 할 곳을 모르고
그저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다.

영겁의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만나게 된 실들은
세상의 모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고 바랜지 오래이다.

허나 그 매듭만은 천년을 산 나무의 뿌리처럼
단단하고 묵직하여
절대 풀릴 줄을 모른다.

아버지

노 이 지

내가 어렸을 때는 우주를 동경했다.
아버지와 별을 바라보고
하나 둘 셋 별을 세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바다를 동경했다.
아버지와 서핑을 하며
바다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했다.

지금은 혼자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우주 비행복을 입고
서핑보드에 누워 있으면
나는 철없는 어린아이인 것이다.

내가 어른이 된 지금, 나는 하늘을 동경한다.
하늘을 보며 누워 있으면
아버지의 눈을 보는 것 같다.

속죄

이 인 혜

언제부턴가
잠에 드는 게
깨는 것보다 어려웠다

눈을 감으면
너에 대한 연민이
나를 깨우고

눈을 뜨면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추한 욕심이
다시 눈을 감긴다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만

알기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입술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도울 손길이 없을 때
나의 가위가 됐다

가위는
속죄의 무게가 되어
눈을 감는 것도
뜨는 것도
허락지 않는다

순리

이 인 혜

나에게 있어
날 때부터 타고난
유일한 것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재주

살아남기 위해 시작된
본심을 감추는 일은
거짓으로 점철된 나를 빚었고

너를 늘 믿지만
나는 믿을 수 없음에
허락된 것은
불안한 삶

그 불안에
너마저 잠식되고 있음을 모른 채
이내 놓아버린 손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침묵들은
거짓말에 대한 대가였고

보내는 순간에도
줄곧 위선뿐이었다
이해한다는 말은
끝내 널 위한 말이 아니었다

열기

이 인 혜

당신이 존재했던
내 삶은
언제나 습했고
뜨거웠다

그 안에 갇혀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고
움직일 힘도 내질 못했다

당신의 부재에도
열기와 습기가 묻힌
그 끈끈함이 남아서
나의 삶은
아직
습하고 뜨겁다

긴 밤

이 윤 지

손끝에서
번진
보라색

빛나지 않는
밤하늘이
눈을 가리고

언제면 끝이 날까

희끄무레한 초승달이
할퀴고 지나간 길에

해는 뜨지 않고
별이 한 방울

빈 곳

이 윤 지

누구의 것인지 모를
온도가 그리워

텅 빈 허공을
외로움을
견딜 수 없게 되었건만

손을 휘저어도
빠져나가는 바람 뿐이라

어느틈에
내 곁을 둘러싼 빈 자리가
내 몸에 들어앉았나보다

갈비뼈 안쪽이 텅 비었다
빈 자리엔 바람이 분다

조어

이 윤 지

당신의 이름을 지은 누군가는
아주,
아주 오래도록
고민했을 터였다

그 짧은 언어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의미하는
기호가 되기에

그 누군가는 새벽이 다 가도록
고민을 거듭했으리라

당신에게 걸맞은
수식어 하나
찾지 못하는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수밖에.

웃는 당신은
내 안의 말이 부족한 나머지
그저 고왔다

기다림

류 정 은

너는 대장장이이다
용광로의 열기를 건디며 쇠를 달군다
팔뚝엔 광광 망치질 소리가 돌아나고
그 물길을 따라 땀이 흐른다
거칠고 두터운 손으로 끊임없이 망치질하는
너는
대장장이이다

아니
너는 쇠붙이다
두들길수록 단단해지는
용광로에 벌거벗은 몸뚱이를 들이미는
물세레에도 경건하게 몸을 내어주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피하지 않는
너는
쇠붙이다

옷장정리

류 정 은

옷은 많이 입을수록 보풀이 생긴다
보풀은 털어낼 수 없다
잘라내야 한다
미련처럼

마음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했다
헌것을 버리려 시작한 정리지만
간혹
헌것을 옷장 한쪽에 치워두고
새것을 버리기도 했다

미련이 보풀처럼 달라붙어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리했지만
옷장 안은 아직도 어지럽다

툑

류 정 은

주머니 깊이
작은 마음 하나
숨겨 두고

그 초라한 덩어리
눈물로 키웠다.

나는
너를 못내
사랑하였나

너는 가면을 썼기에
나의 사랑은 장님이었음을

버린 것인지
버려진 것인지 모를
물먹은 숨 하나
떨어졌다

행복

이 혜 진

그 길에
무엇이 존재했나

너는 무얼 그리
서두르려 했나
찾으려 했나

서두르지 마라

그 길에
그리고 네 곁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

불씨

최 유 정

홀로 피어오르는 불씨 하나
눈길 주는 이 없이
감싸주는 이 없이
꺼질듯 말 듯
살려달라 발버둥 치는 불씨의 밤
촉촉한 바닥과 차가운 공기에 치여
환한 불꽃 하나 못 피우고 사그라드는 불씨

크고 어두운 동굴 속
도움을 청하는 그 작은 움직임에
조그마한 구멍사이로
무심히 던져지는 햇빛 한 줄기
그 생명의 빛에 답하듯
슬그머니 힘을 내는 불씨

그 곳에서

최 유 진

하나

나는 그곳에 갔고

그들을 보았고

매혹되었다

둘

나는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알아갔고

빠져들었다

셋

나는 우리가 되었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곳에서

봄, 여름 그 어디쯤에서

최 유 진

살랑하며 불어온 바람 한 자락
스룩하며 내려앉은 햇빛 한 줄기
따스하기만 한 그 속에서 강렬히 등장한 너

네가 나에게 오면
나는 힘없이 너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이런 내 마음은 모른 채
툭 하고 건드렸다가 다시 도망치는 너

너는 봄이다

*

小説

바다

이 윤 지

32평짜리 아파트. 계약할 때부터 채광이 좋다는 말을 닳도록 반복하던 부동산 업자의 말은 허풍은 아니었다. 베란다 창문 밖 하늘이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작열하는 햇빛이 베란다 안으로 가득 비쳐들었다. 해정은 그런 풍경을 눈앞에 두고도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다. 작년의 그녀였다면 신발을 구겨 신고 달려 나가서 사진이라도 몇 장 찍어뒀을 법한 날씨였지만, 지금 그녀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야 눈을 붙이려는 차에 밝은 햇빛이 반가울 턱이 없었다.

정말이지, 블라인드라도 달아야지 이대로는 못 버티겠어. 그녀는 습관처럼 되뇌며 침대에서 쉬는 것을 포기하고 빛이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눈꺼풀이 뻑뻑했다. 감은 눈 아래가 따갑다 못해 화끈거리는 감각을 애써 무시한 채 잠을 청했다.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쉬다보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때였다. 가장 듣고 싶지 않던 소리가 울렸다. 히스테릭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집요한 울음소리. 감은 눈에 힘이 들어갔다. 절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울음소리도 곧 잦아들겠지.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그 알팍한 바람은 끼익, 문이 열리는 소리에 끝을 맞이했다.

“자기야, 애기 우는데 어떻게 해?”

“당신이 달래보면 안 돼?”

“이유를 모르겠어서 그래, 자기는 어떻게든 알아채고 그치게 해주잖아.”

해정은 어이가 없어 뭐라 말을 잊지 못한 채 한숨을 뿔었다. 내가 뭐라고, 나 역시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의 심중을 읽어낼 능력은 없었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해보다가 그중 하나가 들어맞는 것이건만. 그녀는 짜증스럽게 제 머리를 헤집었다. 그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를 찾아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부터 문이 열리기까지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다. 나에게 떠넘기는 게 조금 더 편한 길이니까 그 쪽을 선택한 거겠지. 울컥하는 마음에 무어라 따져 물으려 애써 감고 있던 눈을 뜨고 보니 그는 혼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용서를 구하는 미소를 지어보이고 있었다.

한껏 처진 눈썹에 애매하게 올라간 입술 끝. 곤란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있는 힘껏 어필하는 어설픈 미소. 연애 시절부터 몇 번이나 보았던 표정이기에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다. 아이의 일이니 거절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런 표정으로 부탁을 해온다. 예전에는 화난 마음도 풀어지게 만들었던 표정이건만. 어째서 밍살스럽게만 보이는지 알 길이 없었다. 아직 우리의 관계가 연인이었을 때, 저 표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드는 걸 일찍부터 알아채고 차버렸어야 했던 건데. 이전 같으면 장난으로라도 하지 않았을 생각이 농담의 탈을 쓰고 무심코 떠올랐다.

아니지, 이런 생각은 해서 뭐하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감정을 눌렀다. 잠을 못 잔 것이 문제였다. 쉬지 못한 몸이 거센 항의를 이어가는 탓에 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힘에 부쳤다. 작은 일로도 감정은 극에서 극으로 내달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쏟아내다가 손에 든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어지는 자신은 확실히 정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어쨌거나, 아직도 자신의 표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 남편에게 노골적으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말다툼이라도 하게 된다면 버텨낼 기운조차 없었다. 차오르는 감정을 겨우 눌

렀다.

“기저귀는 확인해본거지?”

“그럼, 그 정도도 안 해보고 너한테 왔겠어?”

이렇게 되면 빠져나갈 길도 없었다. 해정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아이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아이를 마주하자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에 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가 울려오기 시작했다. 손을 뻗어 안아들면 그 몸은 고작 팔뚝의 반질밖에 차지 않을 정도로 작그마하다. 다만 울음소리는 그 몸에서 날 수 있는 소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컸으며 그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정말 왜 이러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이를 안아 들자 이제는 익숙해진 통증이 뒤따랐다. 해정은 아파오는 팔을 무시하고 아이를 조금씩 흔들어주다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몸이 건강함과 한없이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느껴졌다. 여단을 때마다 삐걱대는 닳아빠진 가구들과 다들 바 없는 모양새였다. 아이의 울음소리, 무게, 온도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병들게 하는 것 같았다. 사랑스러워야 마땅할 아이가 싫게만 느껴지는 자신은 이상한 사람인 걸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던 시기도 있었다. 결혼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언젠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삶의 방식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남편과의 만남은 또 얼마나 멋있었는지. 환상을 품기에는 더할 나위 없을 정도였다. 큰맘 먹고 사진을 찍으러 외국으로 나갔던 때였다. 그녀에게는 두 번째 해외여행이었고, 매일같이 흐리던 하늘에서 벗어나 마주한 청록색 바다는 충분히 빛나고 있었다. 해정은 유독 바다를 좋아했다. 해변의 모래알이 달라붙는 것조차 끊임없이 파도치는 바다에 몸을 맡기는 감각을 생각하면 신경 쓰일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따끈하고 간지러운 감각마저 해정은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 최고의 장소에서 만난 사람이 나와 같은 나라에서 왔으며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손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 때의 자신은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시답잖은 말장난에도 웃어대기 바빴다.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지만, 분명 머리끝까지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타지에서 만난 인연에 마음 속 어딘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헤어져서 돌아가기 전에 그와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고, 연락처를 묻고 만남을 이어나가는 과정 모두가 예정이라도 되어있었던 마냥 자연스러웠다.

해정은 추억까지 덧칠되어 더없이 빛나는 그 날을 떠올리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녀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시 만난 그는 기억 속에서 만큼 멋지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런 그와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었고, 헤어지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을 즈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누구의 반대도 없이 행복하게 이루어진 결혼이었다.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남자와 아이를 낳아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두근거림까지 느꼈었다. 현모양처 같은 말에는 질색을 하던 20대 아가씨가 좋은 엄마가 될 생각을 하게 되다니,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었다. 부풀기 전의 납작했던 배를 만지던 손은 얼마나 조심스러웠던가.

그 어떤 힘겨운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따스한 기분은 채 몇 달도 가지 못했다.

먹은 것도 없이 위액을 토해내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날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졌다. 부푸는 배와 늘어나는 몸무게는 일상적인 움직임도 중노동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한 순간도 건강한 상태에서 벗어난 적 없다 자부할 수 있었던 나의 몸은 뛰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약한 것이 되어갔다. 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을 위로하는 일에 제법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왔건만, 매일 우울감은 짙어져만 갔다. 그 시절부터 몇 번에 걸쳐 아이가 이해하지도 못할 애원을 해왔더랬다. 제 몸 안쪽에서 커져가며 움직이는 아이가 사랑스럽기보다 두려울 때, 하게 되는 말은 늘 같았다. 너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게, 나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말아줘.

그 애원은 진심이였다. 그녀는 진심으로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고도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의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저런 당연한 것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며 혀를 차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살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어머니들의 증언만이 실낱같은 희망이었다. 결혼도 하기 전의 어느 날엔가 조카를 봐주다가 힘에 겨워 늘어져있던 나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아 들었던 언니는 픽 웃으며 말했었다.

“너도 아기 낳아보면 달라질 거다.”

해정은 그 말에 담겨있던 확신과 아이를 안고 있던 언니의 따뜻한 시선을 몇 번이고 머릿속에서 돌려보았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순간이 두려우면서도 분만대 위에서 아이를 안으면, 그 때는 정말 내 아기라는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는 자신도 남들과 같은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렇게 믿었다. 다만 그 믿음은 출산의 아픔에 사정없이 배신당했고 결국 아직까지도 자신은 달라지지 못했다.

해정은 침울하게 시선을 내려 제 팔 안의 아이를 보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것은 해정이 없었기 때문인 듯 했다. 한동안 안고 있자니 저절로 울음이 찾아들었다. 아이의 울음이 그친 것은 다행이었지만 해정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다. 요즘 아이가 자신이 있어야 울음을 그치는 일이 잦아졌다. 엄마인 자신을 가장 의지하고 좋아해주는 아이의 모습에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앞섰다. 앞으로 이 아이는 얼마나 더 오래 나를 필요로 할까. 아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여전히 아이를 안고 있는 자신이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인데, 아이가 자라는 시간동안 계속해서 버티나갈 수 있을까. 아이는 온전히 제 팔 안에 놓여있었다. 문득 목을 단단히 받치고 있던 제 손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해정은 그 손을 조금씩 뒤로 젖혀보았다. 아이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목은 그녀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 뒤로 젖혀졌다. 해정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내뿔으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지금의 자신은 위험했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 부엌에는 따스한 석양빛이 든다. 해정은 아까 스스로에게 놀라 아이를 남편에게 떠맡기듯 안겨주고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한 시간 정도 남편이 아이를 보고 있었으니, 해정도 자신의 일을 해야 했다. 부엌 한 쪽에 선 해정은 소독기에서 젖병을 꺼내 분유를 타고 있었다. 이제 물과 가루의 비율이니 하는 것은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다. 손이 외우고 있는 양을 집어넣고, 뚜껑을 집기 위해 손으로 싱크대 한 쪽을 더듬거렸다. 저쪽 방에서 아이의 칭얼거림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음이 급해졌다. 시선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그녀의 손에 무언가 걸렸다.

터억-

젖병의 젖꼭지 부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플라스틱 부분이 바닥과 부딪치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해정은 낮게 욕설을 뱉었다가 제 미간을 꼭 눌렀다. 젖병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 뼈마디가 희게 드러났다. 그녀가 손을 높이 들어 젓병을 내던지면 부엌에는 방금 전과 똑같은 소리가 울린다. 플라스틱 병은 튀어 오르며 몇 번의 소음을 더하고는 끝내 빙글, 굴러갈 것이었다. 점점이 흠뻑 젖은 희뿌연 액체가 바닥을 적실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걸레를 가져와 바닥의 분유를 스스로 닦아내야 할 터였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을 틀어막을 새 분유를 타야한다. 해정은 이 결론에 도달하고 나서야 머릿속의 상상을 단념할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제 손은 힘이 들어간 채 덜덜 떨리고 있을 뿐, 젓병을 잡고 있는 채였다. 이번 달에만 열 번째, 같은 상상을 했다. 결말이 늘 같았기에 그녀는 간신히 온전한 젓병을 들고 우는 아이에게로 향할 수 있었다.

침대 등받이에 기대서 앉자 척추를 타고 아픔이 올라왔다. 해정은 허리의 움푹 파인 부분을 꼭꼭 누르며 눈을 감았다. 아이가 잠들고 몸을 누일 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났다. 어떻게든 또 하루를 버텼다. 해정은 익숙하게 스스로의 어깨를 주물렀다. 온 몸에 멀쩡한 곳이 없었다. 고개를 어떻게 돌려보아도 빠근한 목이 풀리지 않아서 또 한숨이 나왔다. 그러다 문득 거울에 시선이 멎었다. 해정은 순간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자신과 닮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부스스한 머리를 한 여자는 멍한 눈으로 자신을 응시했다. 해정은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여러 각도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그런 후에는 거울 속 여자의 눈 밑에 그림자가 젖서 어두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끌리듯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자세히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모습을 전부 눈에 담아두어야 할 것 같은 기묘한 의무감이 일었다. 입술은 피부색과 비슷할 정도로 창백해서는 군데군데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것이 보였다.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보면 거친 감촉이 생겼다.

“저어, 자기야.”

거울 속의 자신을 보고 있던 해정은 흠칫 어깨를 떨며 뒤를 돌아보았다. 돌아본 곳에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이 있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 서서 시선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왜 그러는데?”

“아니, 너 낮에 좀 이상했던 것 같아서.”

답답함을 못 이기고 내뱉은 해정의 말투에 남편은 예의 어색한 웃음을 지은 채 손을 내저어가며 이유를 말했다. 해정은 지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던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 순간의 위험하고 불안정 했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낮에? 전 날 잠을 거의 못 잤으니까 그렇지.”

“.....준우엄마.”

남편은 답지 않게 목소리를 낮춰 자신을 불렀다. 해정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어색하게나마 짓고 있던 웃는 표정이 지워진 것하며 낮아진 목소리까지, 대답하고 싶지 않아 말을 돌렸음을 들킨 것이 분명했다. 그런 와중에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저를 부른 호칭이었다.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했잖아.”

임신 사실을 알았던 그 날, 해정은 당부했었다. 서로에게는 아이의 아빠, 엄마가 아닌 서로로 있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기 위해 두 사람은 이제껏 서로의 이름을 부르거나, 연인 시절에 썼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해정의 말에도 남편은 미안하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걸 다 감수하고 이제껏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호칭을 사용한 것이겠지.

“네가 아이 엄마인 건 사실이잖아.”

“내가 아이한테나 엄마지, 너한테도 애 엄마여야 해?”

“아이한테는 엄마인 건 맞아?”

해정은 숨을 들이켰다. 격양된 감정이 진정되지 않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요즘은 매일같이 감정이 요동쳤지만, 스스로의 표정 하나 관리할 수 없는 이런 순간들은 아무리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이 엄마이라면,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또 뭘 포기해야해?”

“너는, 무슨 애 엄마가.....”

남편은 질려버렸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감추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노골적인 한숨이었다. 오히려 ‘너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해정은 그 모습에 주먹을 꼭 쥐었다. 분명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 지는데 이 감정을 꺼내려 들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지금의 남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입을 꼭 다물자 목이 아파왔고, 눈에는 뜨끈하게 열이 올랐다. 그러면서도 한 편으로는 체념이 들었다.

해정이 남편의 저런 모습을 마주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 때는 남편이 자신에게 보여준 태도에 놀라면서도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남편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지만, 해정은 그가 늘 자신의 기분을 살피주려 애쓰는 모습을 좋아했다. 그런 사람이 한 치의 배려 없이 내뱉은 말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던 물이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만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짚어보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그 이유는 찾아내지 못한 채로 남편은 원래의 태도만을 보여주었다. 해정은 안심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마음에 걸렸었다. 해정은 이제야 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 날도 다툼의 원인은 아이였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쯤 남기고 있었고, 해정은 아이를 낳으면 언제쯤 몸을 회복해서 움직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낳은 뒤에도 육아로 바빠질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면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더 컸다. 달력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가벼운 기분으로 옆에 있던 남편에게 아이를 낳은 뒤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한참이나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상할 정도로 반응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들자 남편은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웃으며 별 일 아니라고 했지만 이내 네가 아이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걱정적 말을 덧붙였다.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서로 주장은 바뀌지 않은 채 몇 마디가 더 오고 갔다. 언성이 높아질 때쯤 그는 지금처럼 나를 보았고, 그에 놀란 내가 언쟁을 그만두면서 다툼은 일단락되었다. 그 때 남편이 했던 말이 다시금 해정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부모가 되면 자신보다도 아이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주 당연한 사실조차 모르는 아내에 대한 짜증을 여과 없이 드러내던 시선과 타이르는 듯 느릿하게 말하던 목소리까지 생생했다. 오늘의 대화는, 아니 다툼은 그 날의 연속이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격양되었던 감정은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가라앉았다.

“여보.”

“.....왜?”

“아까는 내가 말을 잘못했어.”

갑자기 가라앉은 내 태도에 긴장한 듯 조심스럽게 되묻던 남편은 예상치 못한 사과의 말이 돌아오자 눈에 띄게 표정이 밝아졌다. 해정이 맞는 답을 고른 모양이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담담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아이 때문에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자기야.....”

학생을 잘 가르친 선생이 된 것 마냥 뿌듯한 표정을 보며 해정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아이를 가진 뒤부터 계속해서 마음을 뒤흔들던 감정들 역시 사라진 듯 했다. 감정이 가라앉아있던 담담함과는 달랐다. 그마저도 깨끗이 치워지고 나자 모든 것이 선명했다. 해정은 결심을 내릴 수 있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해정은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잤다. 마침 아이가 울지 않았던 걸까. 혹은 아이가 우는 데도 해정이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일까. 후자라면 남편은 끝내 잠에서 깨 자신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아이에게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더니, 행동은 이전만도 못하다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해정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이불 속에 누운 채 눈을 뜨지 않았다.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건 이제 와서는 크게 신경 쓰이는 일도 아니었다.

“.....일어나야겠지.”

해정은 눈을 뜨기 전 숨을 깊게 쉬면서 오랜만에 누릴 수 있었던 제대로 된 수면의 여운을 만끽했다. 머리맡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켜보니 오전 10시 반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집안이 조용했으니 남편이 이미 출근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시간까지 잠들어 있겠다는 건 역시 놀라웠다. 늦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 때문은 아니었다. 남편이 집을 나선 뒤로 이 시간이 되기까지 아이가 해정의 잠을 깨울 정도로 운 적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만 느껴졌다. 해정은 놀라움 뒤의 약간의 불안을 누르려는 듯 가슴께를 지그시 눌렀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면 눈이 닿는 곳에 아이의 침대가 있다. 느릿하게나마 기꺼운 마음으로 그 쪽으로 향하면, 아이는 눈을 뜨고도 조용히 모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정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해정을 향해 작은 손을 내저었고, 해정은 그 손을 마주잡고 미소 지었다. 창문을 통해 비쳐드는 햇빛이 눈부셨다.

“별일 없어서 다행이다, 아가야.”

너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면, 오늘 나는 결심한 일을 실행할 수 없었을 텐데. 해정은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며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를 쓸다가 내친김에 그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스운 일이었다. 오늘날만큼은 아이에게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해정은, 떠나기로 마음먹고서야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줄 수 있었다.

떠난다.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해정도 아이를 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떠나버린다는 행동이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남편은 당연히 자신을 찾을 것이다. 자신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될 테고 온갖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겠지. 해정은 거기까지 생각하면서도 아이를 내려놓고 옷장 옆에 박혀있던 캐리어를 꺼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해정은 당분간 혼자 있

고 싶었다. 어딘가에 방을 빌려서 묵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옷을 챙기는 손에 속도가 붙었다. 이상하게도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즐거웠다. 이 집에서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다.

해정은 어제의 대화에서 절실히 느꼈다. 자신과 남편은 연인이나 부부로서는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아이의 부모로서는 맞지 않았다. 남편이 정말 자신보다 아이를 우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치명적이었다. 해정은 남편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 할지 고민했던 날들을 떠올렸다.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보채고 우는 아이를 달래야 했던 날. 엄마의 손을 잡고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옆을 지나가던 다른 집 아이를 보면서도 이 아이가 저만큼 클 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 간만에 나갔던 외출에서 10분도 채 다니지 못하고 돌아왔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한창 귀여울 때인 아이가 자라나는 게 아쉽다는 남편에게 빨리 훌쩍 자라서 내 곁을 떠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었겠는가.

그 일이 아니더라도, 남편은 자신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무슨 말을 하건 자신을 그저 자기 아이조차 견뎌내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 시선이 돌아올 것이 뻔했다. 함께 살아갈 상대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외로움보다는 차라리 정말 이기적인 사람으로 혼자 살아가는 게 낫다. 해정은 가득 찬 캐리어를 잠그고 일어섰다.

조금 더 노력했다면, 아이를 사랑하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해정은 유독 넓게 보이는 거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이 보내온 시간들이 선연하게 떠올랐다. 잠들지 못하고 보채는 아이를 안고 저 즈음을 한참이나 서성였었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겨우 앉으면 움직임이 멎은 것을 느끼고 다시 잠에서 깨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 욕실에서는 아이를 씻길 때마다 울음소리가 몇 배는 더 시끄럽게 울려퍼졌다. 그 옆에 놓인 서랍장은 아이가 부딪힐까봐 테두리에 스펀지를 붙이느라 허리를 휘게 만들었던 골칫덩이였다. 그렇게 하나씩 기억을 되새기자니 어느새 입술이 비뚜름하게 휘었다.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버텼다. 이미 한계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문을 열 수 없었을 테지. 어쩌면 자신은 처음부터 아이를 배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었다.

“잘 있어, 아가야.”

익숙한 집안의 풍경을 비추는 틈새가 점차 좁아졌다. 문이 닫혔고 해정은 혼자가 되었다. 늘 숨을 쉬며 살아왔는데 공기를 삼키는 것이 새로웠다. 고여 있던 수족관에서 풀려나 한 걸음씩 바다로 걸어 나갔다. 복도에는 캐리어 바퀴가 구르는 소리만이 남았다.

내 문가의 러시아

김 홍 인

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이 잠긴 것보단 무언가에 막힌 느낌이 난다. 택배가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는데? 덜컹, 무서운 느낌이 났다. 힘을 주어 문을 열어 보니 조금씩 문이 열린다. 어쩐지 오기가 생긴다. 문을 열어야 나갈 수 있으니 시시한 일은 아니다. 문이 조금 열리자, 차가운 손잡이에 손을 떼어 온 몸으로 문을 밀어낸다. 얼어붙은 먼지가 굵히는 소리가 난다. 더운 열기에 입김을 뿜어내며 물을 열어냈다. 약간의 성취감이 느껴지며 문이 열리자,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럼, 그렇지. 택배가 이렇게 무거울 리 없지. 빌/어먹게 무거운 생명의 무게.

문 앞에는 웬 백인여자가 죽어 있었다.

아파트 베란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다. 아직 쌓일 정도로 양이 많거나 춥지 않기에 바닥에 닿는 즉시 사그라지는 눈. 그래서인지 백인여자의 시체 주변으로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있었고 그 여자는 문이 열린 충격 탓인지 거기에 머리를 박게 되었다.

이 여자는 누구며, 왜 나의 집 문 앞에서 죽은 것일까. 쓰러진 자세로 봐선 정확히 나의 집 문에 등을 기대며 죽은 것으로 보인다.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백인여자는 없을 텐데? 무슨 영화 같은 음모인가? 나는 불안과 짜증을 내며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한다. 아, 회사에 늦었는데……. 그러고 보니 적절한 핑계거리가 생겼군. 아, 예스!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니 회사에선 적당히 호들갑을 떨며 천천히 오라고 답해주었다. 야박한 회사 같으니라고, 사람이 죽은 문제인데 하루정돈 쉬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녀의 시체를 처음 봤을 땐, 당황과 짜증에 두려움마저 느꼈지만,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과 공식적으로 회사에 늦을 수 있단 사실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날이 추워서인지 시체는 차가울 뿐 멀쩡해 보였고 얼핏 보니 꽤 미인이어서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경찰도 건들지만 말라고 했으니 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자세히 본 그녀는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다. 낯이 익다니, 내가 백인 미녀와 연관될 일이 있던가? 대학생 시절 중에 스쳐간 교환학생인가. 그럴 리가. 기억에 남을 정도라면 낯이 익은 정도가 아니라 ‘알았던’ 사람이겠지. 서리가 켜서 더욱 탁해진 애쉬 블론드, 녹색 머이트 코, 커다란 입술. 아, 설마. 목덜미로 소름이 돋았다. 왜 나의 집에 온 것이지?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추억 속에서 그녀는 다가왔다. 확실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와 관계있는 백인 여자는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집 문 앞을 뒷자리로 잡기엔 우리의 관계는 너무나 건조하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오갈 데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문도 두들기지 않고 문 앞에 앉아서 죽은 것일까? 어쩌면, 힘든 몸으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들겼는데 내가 자느라 못 들었던 것일까? 만약, 만약, 그랬다면……. 혹시 모를 죄책감에 몸이 더 추워졌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녀는 내 인생에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녀에겐 흔한 일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찾아온 걸 봐선 그것도 아니었을지도. 따지고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다. 그녀를 만났을 때, 그때는 아마도 무언가에 취해있을 때였다. 취직하지도 못한 채, 사회에 나와 방을 얻어 살면서 딱히 술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취하던 때가 많았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자주 우는 것 같은 기분에 잠겼다. 누군가를 사귀지도 않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다. 친구들이라면 SNS를 통해 자주 연락했지만 직접적

으로 만나지는 못했다.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나와 비슷하거나 아예 달라서, 특별히 아무 일이 없더라도 바쁜 척 방을 나서지 못했다.

그녀는 그러한 시기에 만났다. 그날은 평범하게 술에 취했었다.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시기는 친구들을 만날만한 때도 아니었다. 홀로 방에서 취했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어딘가에서 기어들어왔다. 어쩌면, 애인과 헤어졌을 때일지도 모른다. 그저, 어딘가에서 말을 주워듣고 와서 찾김인지 성욕인지 모를 기분에 전화를 하였다. 그 번호는 주워온 전단지일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일 수도 있다.

나는 취한 김에 어딘가의 콜걸을 불렀다. 빌/어먹을 동정을 팔아버릴 생각이었다. 이왕 부를 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단 생각에 백인 여자를 주문했었다. 나의 싸구려 동정을 팔아버릴 가격은 생각보다 값비쌌다. 한참 후에 찾아온 그녀는 나타샤.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러시아 여자라기에 나타샤라고 불렀더니만 별로 좋은 뜻이 아니라고 화를 내서 오히려 나타샤로 기억하게 되었다. 콜걸은 사기가 많고 예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소리에 반쯤 기대를 버리고 불렀는데 의외로 예쁜 사람이 와서 놀랐던 기억도 있다. 아니, 20대를 불렀는데 나중에 그녀가 말한 나이는 30대라고 했으니 비슷한 것일지도. 어설프게 영어로 인사하니 그녀도 어설프은 영어로 답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처음'이라고 말하니 놀라면서 짓궂게 뭔가 물었던 것도. 나타샤는 활발하고 유쾌했으며 우울했다. 그녀는 나에게 러시아 인사말과 단어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내 몸을 애무해 줄 때는 장난치는 것 같았다. 친절하게 젖은 휴지 뭉치와 영어 몇 마디를 휴지통에 버려주고는 별명 같은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서양인다운 제스처와 호탕한 웃음을 보였고 자주 보았던 성인영상물처럼 과장된 반응을 보였지만 어쨌든, 이름을 말 할 때면 쓴 맛이 심한 것을 핥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내 동정을 팔아준 그녀가 아름다워져서 몸을 섞은 것 이상으로 말을 섞었다. 서로 통하지 않는 말과 몸짓으로 꽤 많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가 돌아가고 잠든 그 다음날, 그녀의 이름과 휴지통과 함께 비워버렸다. 그것은 또 다른 취기였었다.

경찰이 곧 왔다. 여러 가지 사정조사를 하며 그녀를 아냐고 물었지만 나는 부인했다. 조서를 쓰기 위해 경찰차에 타게 되었다. 나는 죄가 없으니 떳떳해도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싶었으나 그녀와의 관계는 불법적인 성매매와 지난날 취기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낮선 경찰차의 모습과 상황에 몸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옆에서 경찰이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줬지만 요동치는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이러다 수상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는 게 아닐까 하는 망상도 피어올랐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몇 가지 사정정취를 한 후, 조서를 썼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리지 않았다. 힘을 주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시체를 보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간단하게 사실을 밝혔다. 어설프게 끼어들어서 혹시 모를 음모에 발 담그거나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는 것이 두려웠고, 불법이란 뽀뽀하지 못한 사실을 경찰에게 말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긴 싫었다. 그리고 마치, 억울한 척 혹은 낯선 사실에 두려운 척, 회사에 어서 가야 되서 바쁜 척,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동반된 나의 연기가 경찰들에게 통하였는지 아니면 관련혐의가 없다고 여겼는지 모른다. 의외로 경찰들은 별 질문 없이 나를 보내주었다. 혹시 모를 일 있으면 전화하란 소리와 함께 담당 경찰관의 명함을 받고 금방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다. 회사에선 하루 쉬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집에는 갈 수 없다. 집에 가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나의 집은 한창 사건조사 중으로 번잡하다고 들었다. 경찰에게 한 소리도 있고 해서 결국, 늦은 점심을 먹고 회사에 출근하기로 하였다.

시간은 얼은 것처럼 지나갔다. 어딘가 굳어있는 움직임은 일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던 사실을 알렸다. 주변 사람들은 나와 같이 굳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시체 곁에 무언가를 두고 온 느낌에 창문만 자꾸 쳐다 볼 뿐. 어쩔사리 야근까지 채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그녀의 일은 어제가 되어있었다.

샤워를 하고 나와 TV를 켜고 침대에 걸터앉았다. 싱숭생숭한 마음에 잠이 잘 올 것 같지 않다. 냉동실에는 아까 퇴근하고 오면서 사온 캔 맥주 몇 개가 있다. 거의 언 듯한 캔 맥주로 목을 축이면 쪼한 머리와 함께 고민들이 모두 목구멍 너머로 삼켜지는 것 같다. 몇 캔 더 마시면 뜨거워진 머리가 삼켰던 고민들을 끌어오지만, 적당한 취기가 그러한 것들을 유쾌하게 비웃게 해준다. 그렇게 몇 캔을 더 비우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약간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누구냐고 묻는다.

누군가가 울었다.

문 너머에는 어색한 한국어가 들린다. 그녀와 관계된 사람인가. 문구멍으로 밖을 드러다 보니 웬 동양여자가 서있다. 누구시죠? 어쩌면 포교라든지 방문판매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시간에?

“아, 안녕, 하세요. 나타샤 언니의 일, 왔습니다.”

어색하게 끊어지는 한국어이다. 나타샤요? 나타샤가 누구죠? 아침에 있었던 일ियो? 그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녀와는 무슨 관계죠? 같은 가게에 있었다고요? 아, 뭔가 일이 있나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따위의 말을 하는데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었다.

“위험, 해요. 도망, 처야요!”

무슨 일이냐고 항의하려는 나의 얼굴에 그녀는 그러한 말로 답하였다. 무언가 매우 다급하게 느껴졌고 나는 불안해졌다. 이번 주에 샀던 복권이 맞아버리는 것이 아닐까. 가진 돈을 모두 복권과 함께 써버린 게 아닐까.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뛰었다. 어디로? 엘리베이터를 지나쳐 비상구로 나선다. 답답한 공기와 함께 어지럽게 계단을 내려간다. 어디로, 어디로?

몇 개의 층을 날려버리고 1층에 도착한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녀는 말도 없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래봤자 작은 여자인데, 나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끌려간다. 대답 없는 질문만 계속 주절거리면서 속도감에 정신을 못 차린다. 아파트의 정문을 나서서 거리를 달리자, 뒤에서 급하게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무엇이지? 쫓기는 건가? 설마, 영화와 같은 비상식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계속되는 낯선 상황에 심장의 고동이 미칠 듯이 된다. 일탈을 할 때처럼 묘한 흥분감과 기대감이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한 미지의 공포가 등 뒤를 쫓는다.

그녀를 따라 나오면서 본 거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마, 지금은 늦은 새벽이겠지. 차라리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숨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언젠가 본 첩보영화에선 오히려 사람 속에 숨는 것이 좋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녀를 따라 달리는 곳은 낯선 곳이다. 집 주변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독히 낯설다. 낯선 한기에 배가 아프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왜 나를 데리고 말없이 달리기만 하는 것일까. 삼켜진 물음이 뱃속을 맴돌아 고통과 함께 나를 더욱 침착할 수 없게 만든다.

갑자기 그녀가 멈췄다. 주변을 둘러보니 어딘가의 산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보인다. 도로

는 한적했고 그 주변으로 자리한 수풀은 꽤 음산해 보인다.

“여기로, 가야, 해요.”

그녀는 수풀이 우거진 한 측면을 젖히며 말하였다.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숨겨진 등산로처럼 보였다. 여기로 말인가요? 나는 물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산길 때문에 핸드폰의 손전등을 밝히고 나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꾸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나온 탓에 손이 너무 시리다.

그녀를 뒤따라 산을 오른다. 야밤에 낯선 여자와 등산이라니 아무 일이 없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 상황이다. 나는 그녀를 향해 저기요, 저기요! 하고 묻는다. 그녀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사실 뒤에서 났던 차 소리도 관계없었던 것이 아닐까? 서둘러 달리느라 몰랐지만 아까부터 우릴 뒤쫓아 오는 기척은 없다. 누가 쫓아온단 거예요? 여보세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핏속에 내 손을 쥔 그녀의 손을 주먹으로 쳐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나는 놀라서 넘어졌다. 그러나 나를 이끄는 그녀의 힘에 끌려가듯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 이제 나의 입에서 더 이상 말소리가 안 나온다. 그녀의 손이 너무 차다.

나는 아무래도 위험에 빠진 것 같다. 오를수록 주변의 형상이 무서워진다. 스쳐지나가며 본 나무는 마치 비웃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그녀는 환상 속의 귀신이나 그런 것이 아닐까? 그녀가 쥔 손이 동상에 걸릴 것 같다. 시리다. 점점 그녀가 가는 길도 믿을 수가 없다. 주위를 도는 것처럼 어지럽기만 하다. 길을 잃은 것일까. 주변은 이제 방향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거진 숲속이다. 뒤를 돌아봐도 그것이 뒤인지 알 수 없다. 호흡은 거칠어져만 간다. 이젠 정말 뭐가 되었든 그녀를 멈추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녀가 멈췄다.

우물이 보인다. 작은 공터처럼 보인다. 이곳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녀가 손을 뻗었다.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는 말없이 우물을 가리킨다. 조심스레 우물에 다가간다. 다가갈수록 쉴비린내가 난다. 숨이 찬다. 오래돼서 녹이 쓴 것인가. 우물에는 물이 가득 담겨져 있다 못해 조금씩 넘쳐흐르고 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보통 물처럼 부드럽지 않다. 불길함이 느껴진다. 조금씩 불을 비춰본다. 검은색? 아니, 붉은색. 우물 가득 채우다 못해 넘치는 것은 검붉었다.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뒤에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가 옷을 벗었다. 알몸의 그녀는 천천히 걸어온다. 곧, 나를 지나쳐 우물 속으로 천천히 몸을 담갔다. 가라앉는 그녀의 눈에는 눈동자가 없다. 나는 무서워서 핸드폰도 집어던지고 뒤로 달렸다. 무엇이지? 내가 본 것이 무엇이지? 그녀는 무엇이지? 내 입에는 알 수 없는 비명이 흘러나오고 있다. 도망쳐야 한다. 어디로 가야하지? 여긴 어디? 이젠 내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지조차 의심된다. 마음이 다급하다. 계속 달려야만 하는 생각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불잡힌 것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발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땅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새 나는 거대한 거미줄 위에 엉켜있다. 숲 전체를 둘러싼 거대한 그물망이 서서히 떠오른다. 그 바람에 나의 몸도 떠오른다. 무언가의 마찰음이 따라온다. 마치, 공포영화의 클라이맥스 같다.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몸은 멋대로 뒤를 돌아본다. 우물에 들어갔던 그녀가 기괴하게 몸을 꺾으면서 다가오고 있다. 어느새 그녀의 얼굴은 나타샤의 얼굴이 되어있다. 아니, 처음부터 나타샤였는지 모른다. 그 전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불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날카롭게 기어와 나의 몸을 덮쳤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는 무어라 말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단지, 예전에 들어봤던 기분이다. 나타샤는 나의 몸 위로 올라탄다. 갑작스러운 쾌락에 공포가 가라앉는다. 어떠한 생각도 하지 못하며

그녀의 울동에 맞춰 몸을 들어올린다. 신음소리인지 비명소리인지 그것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지 나의 입에서 나오는지 헛갈려진다. 그래,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이 낯선 상황이 어딘가 진부하다.

몇 개의 자명종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린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는 여러 개의 빈 캔과 함께 침대에 널브러져 있었다. 뉴스가 틀어져 있는 TV. 시끄럽게 머리를 때리는 탁상 위의 자명종. 핸드폰에선 진동과 함께 신음소리가 들린다. 얼마 전, 친구가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바꿔놓았던 모닝콜이다. 효과가 좋아서 안 바꾸고 있었는데 바꿔야겠다. 소음에 머리가 진탕되며 생각을 날려버린다. 아, 역시 꿈인가. 서둘러 알람들을 끄다. 알람을 끄는데 쿵쿵한 냄새와 어색함이 하체에서 느껴진다. 불안감을 느끼며 바지를 확인해 본다. 아, 젠/장. 오랜만의 몽정이다.

그녀와 관계된 일은 의외로 금방 마무리 되었다. 그녀가 죽은 날로부터 일주일정도 후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사체 때문에 어느 폭력단과 관계가 있었던 듯하다. 도망치던 와중에 우연히 나의 집 앞에서 쉬던 중 몸이 약해져서 동사했다는 것이다. 굉장히 석연찮고 급격한 마무리지만 러시아썸 되는 큰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검사검사 관계된 폭력단을 때려잡으며 서둘러 마무리 지은 것 같다. 아니면, 관심 없는 불법 채류자 창녀 따위에게 시간을 더 소비하기 싫은 것일지도 모른다. 경찰은 나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탐문을 하였기에 좁은 아파트 내에 이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었다. 이웃들은 고생한다고 말은 하였으나 어쩐지 의심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였으나, 사건이 마무리 된 후에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가십거리로 남게 되었다.

하나, 딱딱치 않은 것은, 그녀가 정말로 나의 집 문을 두들기지 않았단 것이다. 나 역시 그랬으며 주변 사람들도 두들기는 소리를 못 들었고 CCTV에도 그러한 영상이 남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단순히 내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앉아서 죽어버린 것이다. 혹시 내가 없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었을까? 아니 그보다 어디든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의 집은 자그마한 아파트 1층이었기에 사람들은 단순히 잠깐 쉬려고 했던 게 우연히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녀와의 관계가 있는 나의 입장에선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그 추운 날 현관에 앉아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낯선 문 앞의 바닥은 누구에게나 추울 것이다. 그녀는 왜 문을 두들기지 않았을까.

눈이 내린다. 첫눈 때와 다르게 본격적으로 쌓이는 눈이다. 문을 나선 현관에는 문에 흠어져 눈이 쌓여있다. 마치, 그녀가 앉아있던 부분만 남기고 눈이 쌓인 것 같다. 한참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어떻게 되었냐고. 지인들에게 연락이 안 되어 일단, 화장을 하여 그녀의 고향으로 보내기로 하였다고 한다. 알겠다고 하면서 화장하는 날 짜를 가르쳐달라고 하였다.

무언가를 털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서 가까운 이자카야로 간다. 친구들을 불렀다. 일이 좀 있는데 한잔 하자고. 두 명 정도가 시간이 된다고 하였다. 이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특별한 일이 있었어. 아무나 경험하긴 특이한 일이야. 술이 좀 들어가며 말문이 트인다. 잘 모르는 사람이 죽었어.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죽는 방식도 특이했어. 사건도 마찬가지. 웬지, 일이 생길 거라 믿었어.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더라. 마음만 착잡하고. 그 마음도 서서히 사라지더라. 그저, 특이한 악몽을 꾸었을 뿐이야.

“뭐여, 아무 일 없으면 됐지. 무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진지하게 들어주던 한 친구는 이렇게 대꾸했다. 당연히 무언가 있어야지. 잘 모르는 한

사람의 죽음이 특별한 거였으면, 나에게 온 죽음이 무언가 메시지였으면 그래서, 당연한 일상을 털어낼 이유가 되기를 바랐다.

“나이를 아직도 헛먹었네. 또, 사춘기냐?”

다른 친구는 이제, 한심하단 듯이 혀를 찬다. 아니, 그런 기대 말고도 궁금증이 존재한다고. 궁금하지 않아? 그녀가 왜 나의 문 앞에 자리했는지?

“물론, 그렇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네가 알 수 있는 일은 없잖아. 그냥 흘러보내.”

“뭐, 알아야 될 일이라면 언젠가 알겠지. 고민해 봤자 머리만 아프다고.”

그런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파 볼 열정은 없다. 귀찮고 지겹기만 하고. 감당해야 될 것만 많아지고 하루하루가 벅차지면서 고민은 술자리의 안줏거리 그 이상이 되질 못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그러한 의지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하는 의문은 항상 품고 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풀 수 없는 의문은 머리만 아플 뿐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뻐냐?”

술이 좀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시시덕거리기 시작했다. 취기에 오르면 친구의 고민은 한 없이 가볍고 재밌어질 뿐이다. 그 상대가 관심 있는 이성이라면 가벼운 말도 한없이 무거워져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지만 오랜 친구의 고민은 그저 오락거리다. 한숨을 쉬며 말없이 잔을 들었다. 속을 털어낼 수단으로 괜히 친구들과의 술자리 선택했나 싶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면 진지하고 편안하게 말할 기회조차 없단 걸 안다.

진지하고 무겁게 나타샤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노력한다. 주변에서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고민거릴 털어내며 낄낄거린다. 그 분위기에 따라 나의 고민도 한없이 가벼워진다. 생각은 풍선처럼 부피를 더해가지만 한 없이 가벼워져 하늘 위로 붕붕 떠오른다. 다시, 한잔을 들이키자 괜스레 눈물이 내려다가 웃음이 났다. 차가운 안주를 위해 빙수처럼 갈아져 나온 열음이 보인다. 이걸 그날 위한 눈물이야. 눈가에 열음을 찍어 발라 눈물을 그려낸다. 그런 무례한 여자 따위 알게 무엇인가. 나는 단지 내 속의 나타샤의 비중을 높이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가 내 문 앞에서 죽을 날로부터 열흘이 지났다. 여기서 장례를 치르려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녀의 화장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회사에 월차를 쓰고 서둘러 화장터에 도착하였다. 그녀의 화장터를 찾는 것은 쉬웠다. 눈에 띄게 소규모였으며 딱딱하게 지켜보는 이들에게 사무적인 느낌이 강했다. 화장을 지켜보는 사람은 경찰관계자와 직원들 그리고 나뿐이다. 생각보다 화장을 지켜보는 행위에는 별 느낌이 없다. 타오르는 시체에 엄숙함과 어쩐지 허무함만 남을 뿐. 다른 화장을 지켜보는 울음소리에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그저 우연일 뿐. 굳이 찾아와서 나의 집 앞에서 죽은 우연. 그녀는 나에게 어떠한 인상을 받았을까.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었던 것일까.

화장을 마치고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되냐고. 담당자는 난감해하였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골치 아프단 것이다. 나는 내가 이사건의 첫 발견자란 사실을 알렸다. 그녀가 어디로부터 온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은 나의 집 문가에서였다고. 일단 관계자란 사실을 알자, 그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였다. 사실, 중요한 기밀 따위는 아니다. 단지, 말하기 귀찮을 정도로 적당히 꼬여있을 뿐이다.

하얀 재가 된 그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집에선 그녀가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의 몸이 든 항아리를 내가 맡을까 했지만 곧,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생

각하고 말았다. 아무리 그래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알고 보니, 나타샤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었다. 점주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속였을 뿐이었다. 애초에, 나타샤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터키사람이었다. 그녀는 독실한 이슬람 집안이었기에 한국에 있으면서 입던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몸을 팔아버린 죄로 돌아갈 면목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 그녀의 선택이 아닌 집안의 거부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녀의 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당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잠든 것일지도 모른다. 어디에도 돌아갈 집이 없어졌기에 그대로 움츠러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장례가 치러지긴 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춥지 않았다. 화장터의 열기가 몸에 남은 것인지 유난히 얼굴이 뜨거웠다. 어쩌면 감기에 걸릴지도 모른다. 눈이 조금씩 심해져서 간간히 우산을 펴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데 눈이 어떻게 쌓이는 것일까? 얼굴에 닿는 눈이 너무 미지근하다. 이렇게 미지근한 눈이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마치, 그녀를 발견한 날의 첫눈 같았다. 계속해서 눈은 내리지만 모든 곳에 눈이 쌓이진 않았다.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리, 아스팔트, 아파트의 베란다 등에는 미지근한 눈이 모두 녹아버렸다. 내가 사는 아파트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문 앞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다. 비나 눈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설계와 발걸음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나의 집 문 앞에는 눈이 쌓여있다. 다 막지 못해 들어온 한 줌의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있다. 그녀가 앉아 있었던 만큼 그녀의 냉기가 남았던 것처럼, 찬 바닥에 쌓인 것이다. 마치, 그녀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미지근한 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내 문가에는 자꾸 눈이 쌓인다.

이방인

김 주 성

1부.

우리는 시부야에서 가장 후진 술집으로 향했다. 이 아이디어는 그녀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간혹 우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자주 실행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Y시에서 가장 후진 술집을 찾아냈었다. 당시에는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삼 일 연속으로 두통과 배탈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나에게 동그란 눈을 보이며 왜 그러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순수하게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프지 마.”하는 위로만이 내게 유일한 다행이었다.

시부야에서 가장 후진 술집은 분명 변화가에 있을 것이었다. 나는 후진 술집이 싫었다. 어쨌든 찾아야 하니까, 하고 따라 나설 뿐이었다. 우리가(혹은 내가) 생각하는 후진 술집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술집이었다. 그러니까 100퍼센트 깨끗하게 술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야 하는 것이었다. 익명성으로 가득 차버린 그런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공간. 나는 후졌다는 표현 외에 무언가 다른 표현을 찾고 싶었다.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후진 술집을 아주 좋아했다. 그런 장소를 찾으면 사진을 철컹철컹 찍으며 매우 환해졌다. 그녀는 그러면서 여기 저기 살피며 정말 100퍼센트 쓸모없는 공간인지를 확인하고 다녔다. 사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런 장소에 들어가면 입구부터 머리가 어지러웠다. 숨이 턱 막히고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시부야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시부야에도 이런 쓰레기 같은 곳이 있다니, 하며 속으로 욕지거리를 해댔다.

그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에코모드가 풀린 캠리 같이 덜덜거렸다. 이런 술집의 명칭은 나의 명명에 따라 ‘후진’ 술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최고의 술집임이 틀림 없었다.

나는 아사히만큼은 마시고 싶지 않았다. 생맥주도 아사히뿐이었다.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술이야말로 아사히였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많은 이들이 아사히 잔을 비우고 있었다. 나는 종업원에게 사케를 달라고 했다. 아니면 정종이나 소주나 그런 것들을 달라고 했다. 콜라조차 싫었다.

종업원은 무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사케를 가져다 주었다. 적어도 나만큼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역시나 아사히를 시켰다. 나는 아사히의 거품을 보고 종랑천에 둥둥 떠다니던 그 더러운 거품을 떠올릴 수 밖에 없었다. 처음 마셔본 사케는 이상한 맛이었고 들이킬 수 있는 수준의 술이 아니었다.

나는 우리가 함께 간 두 번째 쓰레기 술집에서 다시 기억을 잃었다. 문득문득 주변의 일본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기억이 머리를 스쳤다. 뭘 봐. 어쨌라고. 쓰레기 같은 술이나 드셔. 다행히 그녀는 나를 호텔에 잘 데려다 주었다.

우리가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갔던 것은 여름이 한풀 꺾인 9월 초였다. 우리는 어쩌다 일본 여행을 가자고 서로 이야기했고, 다음 날 그냥 떠나왔다. 둘 다 학생이었지만 방학에 아르바이트로 돈도 모아놓았고, 무엇보다 우리 둘 다 그런 것쯤이야 상관없다는 마음가짐이었다. 분명 당시에 난 결국 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예상을 했던 것 같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는 나의 자취방이나, 그녀의 자취방 또는 다른 어딘가의 조그만 방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가 내 옆에 누워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일본에서도 나는 눈과 입이 바짝 말라 일어나자마자 내 옆에 그녀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그런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누워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눈과 입이 바싹바싹 말랐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일본을 돌아다니는 내내 계속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익명의 사체당 어리들이 떠다니는 그런 장소들을 돌아다녔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장소, 공기에서 그렇게 악취가 날 줄은 나는 정말로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더라면 비행기도 타지 않았을 것이었다.

대부분의 상점들은 뭔가 특색이라고는 없었고 비슷한 물건들이 즐비했다. 일본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들, 그것들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호텔에서 그녀의 몸을 휘감을 때도 그런 공기는 긴고아처럼 머리를 조였다. 그녀는 그런 나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장소들을 더욱 열심히 찾아냈다. 충격이 계속 되면 조금은 괜찮아 질 줄로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일본 여행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심지어 전형적 다다미방에 들어가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씻지도 않고 자는 척을 했을 정도였다.

인천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택시를 탔다. 택시 백미러에는 천주교의 묵주와 불교의 묵주가 함께 걸려 있었다, 나는 그 택시에서 한 시간 동안 곤하게 잠들었다. 내가 상상했던 일본의 아름다움이 꿈속에서 펼쳐졌다. 사시미 칼 하나하나에 새겨진 음각이나 카레집의 각각 다르게 생긴 나무수저, 어디서도 보지 못한 조형물들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스쳐지나갔다.

잠에서 깨었을 때 그녀는 눈이 빨개져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애 기사를 주욱 펼쳐서 기사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읽은 듯 했다. 그녀가 간혹 하곤 하는 행동이었다. 어느 아이돌이 어디에서 공연을 했다거나, 인스타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떠다니는 검은 구름 같은 이야기를 그녀는 좋아했다.

나는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하고 이상한 공산품들이 널부러져 있는 내 방에 돌아갔다, 그리고 삼 일 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나름대로의 충전이었다. 그런 나의 집에 그녀는 하루에 한 번씩 들려주었다. 그 것은 내가 그녀의 집이나 일본이나 프랜차이즈 식당에 가는 것과 같이 그녀에게 힘들 일이라, 생각은 했다.

하지만 나는 일본에서 충분히 그녀를 배려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약 오늘 나의 집에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너를 만날 수 없다고 말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누워서 그런 상상을 하며 삼 일을 지냈다. 그녀는 그런 나를 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하며 나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며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대부분은 편의점의 도시락이었다. 그것들은 번기에 쏠려내려 갔다. 시간도 그렇게 지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충 힘을 낼 수 있었다. 학교에 가서 아는 친구들과 조금 뒤섞이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나가는 모임에 함께 나가기를 원했고 함께 나가서 매우 즐거워했다. 뭔가 내게 그런 상황들은 스몰을 입는 내게 프리사이즈를 입혀놓은 것만 같았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했다. 가끔 땅에 옷이 끌리면 그것만 대충 접어 올리면 되는 그런 식이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왔다. 가을이었고, 비가 오더라도 습하지는 않았다. 나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비가 와.

밖에서는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투둑투둑 하는 소리가 어딘가의 슬레이트를 치고 있었다.

-지금 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녀는 오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그녀의 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20분정도 걸렸다. 대충 머리만 감고 나는 큰 우산을 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비가 오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그나마 주말이기에 다행이었다. 주중에 비가 오면 그녀는 그 하얀 집에서 나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깨끗한 이케아로 이루어진 그 집에 가는 것을 나는 매우 싫어했지만 오늘은 그런 것을 가릴 수 없었다. 카스 1.6L 페트병을 세 개 사서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집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따로 무언가를 살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슈퍼싱글의 그 작은 침대 위에 이불을 둘둘 두른 채로 앉아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나는 당장 에어컨을 켜고 보일러를 틀었다. 습하지 않으며, 따뜻한 그런 방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는 맥주 페트병을 냉동실에 넣었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맥주는 더럽게 맛이 없지만 그런 것은 오늘 같은 날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허리에 손을 감았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머리부터 허리 까지 천천히 쓰다듬어주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나무 같았다.

나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중얼중얼했다. 평소에 이야기 하는 쪽은 대부분 그녀였다. 그녀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동의하거나 흠음... 하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꼼짝 하지 않고 가만히 얼어붙어버렸다. 그런 그녀는 매우 불안정한 어떤 원자나 분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디서 터져버릴 것만 같았던 것이다. 나는 그런 그녀가 터져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를 진정시키고, 쓰다듬어주었다.

-어제는 우리 팀이 이겼지 뭐야. 하마터면 10연패 할 뻔 했어. 너네 팀은 요즘 참 잘하던데. 포수 리드도 좋고, 투수들 제구도 좋아. 눈빛이 자신감이 가득해. 부럽지만 어쨌든 우리 팀도 잘 하면 좋을텐데.

참 어제 그 이야기 들었어? 개그맨 누가 결혼한다던데...

그녀가 어느 정도 녹아서 내게 안기면 나는 맥주를 가져와 그녀와 함께 마셨다. 작은 종이컵 두 개를 포개서 '짹'이라고 말하며. 거기서부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없었다. 그녀는 술을 정말 고래처럼 마시고 그대로 뱉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정말 빠른 속도로 페트병 한 병을 혼자 비워버리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 행동은 마치 속 안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행동 같이 느껴졌다. 술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러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닌가. 따뜻하게 속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까.

그녀를 재우고 잠시 샌드위치를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지만 비 맞은 풀 냄새가 공기를 질게 채우고 있었다, 나는, 비 오는 날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내 품에 그녀가 쏙 들어와 버리기 전까지는 비가 오면 일부러 비를 맞으며 돌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비 냄새를 무척이나 싫어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의 축축한 먼지 냄새도, 비의 물 냄새도, 버스에서 나는 습한 냄새도, 다 젖은 신발에서 나는 냄새도, 비가 내린 후의 습함도 모두 싫어했다. 그리고 그 것들은 모두 내가 가장 선호하는 향기들이었다. 나는 빠르게 샌드위치를 사고 집으로 들어갔다. 원룸 대문 앞에서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좋은 냄새였다.

그녀와 나는 많이 달랐다. 사실, 애초에 알고 있었다. 공통점이 없었다. 비 오는 날만 해도 그랬다. 그녀는 비가 오면 극도로 힘들어했다. 나는 매우 즐거웠다.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그녀를 돌볼 힘이 나오는 지도 몰랐다.

그녀와 나의 비에 대한 공통점이라면 비가 오면 술을 마시고 싶어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술을 마셨고, 그녀는 술을 들이켜 버리고 잠드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기는 했다. 비 오는 날의 술은 내게 있어 그녀와 나를 이어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끈 같은 것이었다.

적어도 비 온 날 다음 아침에 그녀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비가 오는 날에는 그런 유대감 같은 것이 우리 사이에 생겼다. 비온 날에는 그녀의 하얗고 딱딱 떨어지는 집에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카페에 갔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인공잔디 위의 소파베드에 누워 나는 눈을 감기도 하고 여기저기 바라보기도 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이 것 저 것들을 보며 재잘재잘 웃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뉴스에는 치킨너겟같이 편협한 정치애기가 너무 많았고, 알지 않아도 될 쓸모없는 정보가 너무 많았다. 간혹 나도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대신 생각해주는 행위가 있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저런건 정크푸드가 낳은 똥덩어리의 똥똥어리야. 생각했다. 그딴거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머리 속에서는 계속해서 맴돌았다. 스펀지밥 머리 안에 플랑크톤이 들어가 레버를 위 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 대신 그런 일들을, 나는 그녀 대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다.

-지금 가장 생각나는 색이 무슨 색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플랑크톤, 스펀지밥, 구멍이 난 수세미, 플랑크톤. 그런 것들이 머리를 휘저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더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날 나는 어때보여?

가장 중요한 말은 쓸모없는 말들의 사이에 살짝 끼워져 나온다. 패티 위 아래로 쌓여있는 양상추 같은 것 말이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의 기억이 술취해 블랙아웃이 된 나와 비슷했다. 간헐적으로 조금씩 상황만이 기억나는 것이었다. 스스로의 가장 깊은 본성을 통해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 되는 것이었다.

-과제같아. 아주 쉬운 과제.

말을 주워담으려 노력했다. 버드와이저를 세 병 마신 후였다. 주절주절. 소용없는 노력이었다.

-내가 좋아하지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풀지 못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는거. 그런거 말이야.

그녀는 그 이후로 다른 이야기들을 주절거렸다. 나는 맥주를 두 병 더 마셨다. 그녀의 한쪽 입술이 아래쪽을 향했다. 좋지 않은 징조였다. 그녀와 나는 싸우지 않았다. 싸우지 않는다는 건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우리는 그 날 밤에도 함께 잤고, 아침에는 알몸으로 함께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집이 나의 집이었는지 그녀의 집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침대는 더러웠고 싸구려 펫트 맥주를 편의점에 가서 더 마셨나 하고 생각했다. 망할 이불을 빨아야겠네. 양치를 하는 그녀의 입술 끝은 여전히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2부.

그녀는 다음 날 사라졌다. 아마도 자취방은 그대로였을 것이다. 핸드폰 번호도 그대로였을 것이다. 항상 먼저 전화를 하던 그녀의 전화가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도, 이들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곤 했다. 모르는 번호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플까 걱정스러웠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 본 여자는 처음이었다. 슬퍼서 길을 지나다가 울면 어쩌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다.

쓸모가 없는 고민이었다. 나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그녀를 찾지도 않았다. 그저 조금 더 더러워진 내 방에서 잘 지내고 있을 뿐이었다. 다만 같이 듣는 수업이 하나 있어 걱정될 뿐이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녀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겨 수업 하나를 같이 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수업의 첫 오티 시간에 오지 않았다. 두 번째 시간에도 오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불리어 지지 않았다. 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손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수업시간 동안 다른 생각을 하기 바빴다. 게다가 이 수업은 법학 수업이었다. 내가 뭘 알아들을 수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는 분명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출석을 부르는 중 교수의 목소리가 막힘이 없었다는 것이다. 관심이 없어 잊고 있었지만 총인원은 130명이었다. 신청 날에 확인한 바로는 인기 과목이기 때문에 총원인 130명이 다 왔었다. 다섯 번째 주가 되는 날에 출석 부르는 것을 세어 봤지만 130명으로 같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날 때면 그녀를 찾았다. 처음에는 몰래 찾아보았지만 그렇게는 쉽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준비를 해서 나간 뒤 나오는 두 개의 문 앞에서 사람들을 일일이 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것은 여전히 내게 남은 의문 중 하나였다. 가장 나쁜 스토리는 그녀는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던 중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아졌다. 어쩔 수 없이 저녁이면 술집에서 일을 해야 했다. 술집에서 일 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일이 끝나면 알바생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이야기를 던져내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인지 그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예전에 그녀가 했던 것과 같은 말들을 술을 마시며 해댔다. 누구의 성격은 어떻고 다리가 어떻고 누가 사귀고 누가 얼마 만에 헤어지고 어떤 술이 맛있고 하는 쓸모없는 이야기들.

-죽자! 죽어!

소름 돋는 말들도 서슴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 줄로만 알았다. 간혹 도서관이나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 가는 나를 만나면 그들은 말을 걸지 못했다. 추욱 늘 어트린 머리와 가장 높게 올린 이어폰은 그들의 접촉을 막았다.

어차피 다시 보지 않을 이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멍청해 지는 것은 참을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달랐다. 그런 머리에 아무 것도 없는 인간들에 대한 환멸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니?

그녀가 내게 처음 물어본 말이었다.

-내가 뭐 잘났다고 한 적 있어?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여기만 나가면 잘난 척 하고 다니는 거 다 알아.

이상하게 그 날 마감은 우리 둘 뿐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누군가 뺄어놓은 침을 보며 속이 메스꺼리고 있었다.

-누가 그래? 맥주나 한 잔 하러 가자. 속이 역해서 안 되겠다.

나는 잠에 들기 전에 그녀의 집은 참 포근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꿈도 없는 단잠에 들었다.

다음 날 일을 하는 중에 두 명의 여자가 왔다. 가장 일반적인 컵테일을 달라고 했고, 깔루아와 피나콜라다가 나갔다. 그녀들은 나를 보며 뭐라고 수근거렸다. 학교 앞이다보니 대수롭지 않았고 나는 다른 남자 아이들과 함께 외모점수를 매기기에 열을 올리던 중이었기 때문에 빨리 자리로 돌아갔다.

-12번은 어때? 비뿔?

내가 방금 다녀온 자리였다.

-당연히 비제로지 무슨 되도않는 소리야.

-눈도 높아요. 저 정도면 평균이상이야.

-눈도 낮아요. 그런 김에 오늘 술이나? 에이제로만이라도 같이 합석해봤으면 좋겠다. 맨날 비급이잖아?

그날 우리는 우리에게 실제로 비플러스를 받은 여자들과 한바탕 술을 마셨다. 딱히 무슨 일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일어나보니 포근한 집에 사는 그녀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다. 부재중전화.

-어 왜 전화했어?

-오늘 일하러 와?

그녀의 말투에는 뭔가 초조함이 있었다. 나와 정식으로 만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응. 주말이잖아. 왜?

-이따 정문 앞에서 봐.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나름대로 심각해 보였다. 멀리서 노란 머리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빨간 손톱을 잘근잘근 먹고 있었다.

-너 무슨 짓을 한거야?

여자친구 코스프레를 하려는 건가 속이 메스꺼웠다. 분명히 그녀는 좋은 여자지만 간섭은 질색이었다.

-술도 마시고.. 왜? 뭐 안될 일 했나.

-그게 아니고!

그녀가 소리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바라보았다. 왜 저래.

-너 지금 학교 사이트에 쓰레기라고 다 올라왔어. 여자 가지고 노는 개쓰레기라고.

-내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다.

-전 여자친구가 알바할때 온 적 있어?

-아니? 본 적 없는데.

그녀는 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사이트의 글을 보여주었다. 사랑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일하는 곳에 찾아가 보았지만 전혀 안하무인이다. 같이 여행도 가고 사랑한다고 하더니 다른 여자들과 술마시며 연락도 무시한다. 는 내용이였다. 헤어지자는 말도 하나 없이 사라져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낸다. 이름은 뭐다 등등.

-뭐, 별 내용은 없네. 내 이름만 좀 지워주면 좋겠는데.

그녀는 나를 찬찬히 훑었다. 그래. 훑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아무렇지도 않아? 전 여자친구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연락을 끊었고 나는 그걸로 끝인줄 알았지. 나도 같은 집에 살고 그 여자도 같은 집에 사는데 안오는 거면 끝난거잖아. 댓글로 이름 안 지우면 경찰서에서 볼거라고 적어줘.

그 날 아르바이트는 최악이었다. 모두가 나를 평가하는 느낌이었다. 비빔은 받았을까. 아니면 인성때문에 에프를 받았을까. 다들 똥을 보듯 나를 보았다. 다른 남자놈들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금발의 그녀만이 뭐라뭐라 이야기를 붙여 주었다.

-나한테 잘 해줘봐야 그 여자랑 갈아질거야. 저리 가 좀.

그녀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뒷문으로 나갔다. 뿔대로 되라지. 나는 7시간동안 경찰서를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다. 그러는 중에 저번에 왔던 깔루아와 피나 콜라다가 들어왔다. 그녀들은 자리에 앉아 또 한 번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을 달라고 했다.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입 안이 헐어 뭍 먹을 때 마다 짜증이 나는 느낌과 같았다.

적당한 카테일을 바텐더에게 부탁해 그녀들에게 가져다주었다.

-맛있게 드세요.

그녀들은 나를 보며 또 다시 중얼거렸다. 저번에도 그랬지. 저 여자들이 오고 난 후에 시작 된 건가. 찰라에 그녀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네?

비제로의 여자 두 명 중 하나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많이 봤는데. 들창코에 여드름이 잔뜩이네. 쌍꺼풀이 짙은 건 전 여자친구랑 닮았네.

-너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툴립 잔을 잡아들었다.

-내가

잔을 크게 위로 들어올렸다.

-뭘 그렇게

잔을 상 위에 그대로 내리 꽂았다.

-잘못했어

나는 집으로 가 울었다. 우리 집에서는 컴컴한 크레파스 냄새가 났다. 영화 주인공들은 이러다가 잠만 잠들던 것 같았는데, 나에게는 잠이 오지를 않았다. 한동안은 밖을 돌아다닐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휴학한다고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아야지. 전화가 울렸다. 대르르릉.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말을 해야지.

-이제 상관없는 일이잖아. 다시 일하러 갈 수도 없을 거야.

최악의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따듯한 머리색이 떠올랐다. 나는 그런 노란 머리색의 여자를 깊이 좋아하게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런 시기에.

나는 전화를 끊고 옷을 입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집은 삼 분만 걸으면 되는 거리

에 있었다. 아마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집 앞에 서 있었다. 라면을 두 개 들고 서 있었다. 배고프지. 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 서러운 듯 울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그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 끓였다. 좁은 침대 위에 그녀는 옆으로 누워 있었다. 나는 저 여자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녀는 내게 너무 먼 사람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더 가까웠다. 분명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멀었던 다른 사람 생각도 났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입은 더 텅텅했다.

참, 그녀의 집은 무척이나 더럽고 사랑스러웠다.

광주학생항일운동

김 원 목

온 몸이 시커먼 열차가 들판을 달리고 있었다. 솟아오르기 시작한 태양은 고개 숙인 벼의 언저리를 비쳤다. 이슬이 마르기 시작한 벼는 더욱 황금빛을 발했다. 논밭 여기저기에서는 낡은 옷을 입은 농부들이 허리 숙여 피를 뽑고 있었다. 논두렁 위에는 얼굴이며 손발이며 모두 구질구질하게 때에 절은 아이들이 참새를 쫓고 있었다.

들판의 열차는 나주역에 가까이 와 검은 비명을 내지르며 멈춰 섰다. 여러 무리의 학생들이 열차에 올라섰다. 언뜻 보면 검은 제복을 입은 남학생과,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번지르르한 옷감의 일본인과, 빛이 바래어 가는 옷감의 조선인 학생들로 나뉘었다. 그들은 서로 결코 부딪히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가거나 인상을 찌푸리는가 하면, 조선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초점 잃은 눈으로 그들을 피해갔다. 간혹 조선인들 중에는 인상을 찌푸리는 일본인들을 똑바로 마주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다.

열차가 많은 사람들을 뺄어내고, 다시 많은 사람들을 삼키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열차의 검은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기 패거리와 앉을 자리를 찾던 후쿠다 슈조가, 이광춘과 나란히 앉아 조금조금 이야기하고 있던 박기옥에게 다가갔다. 박기옥은 후쿠다 슈조가 다가오는 지도 모른 채 어제 배우던 일본어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것 봐! 이게 바로 조선인들의 댕기라는 거다!”

후쿠다 슈조가 와락 박기옥의 댕기머리를 잡아 당겼다.

“악!”

외마디의 비명소리가 열차 내에 퍼졌다. 검은색의 학생 무리가 웅성대기 시작했다. 학생들 옆에 앉아 있던 상인들이 고개를 돌렸다. 점잖게 앉아있던 갓 쓴 이들의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다.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상인이든 양반이든,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내밀어 비명의 근원지를 찾았다. 학생들의 눈동자가 가장 빠르게 그들을 발견했다.

“이거, 노, 놓지 못하겠어!”

더듬거리는 일본어로 박기옥은 말했다. 그 앞의 이광춘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박기옥의 찡그린 표정과, 이광춘의 난처함을 본 후쿠다 슈조는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대일본 제국의 후쿠다 슈조한테 반말을 해? 에이!”

후쿠다 슈조는 박기옥의 댕기를 더욱 거세게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징들은 머리에 뱀을 한 마리씩 달고 다니지. 징그럽게!”

그의 말에 패거리는 킬킬거렸고, 앞뒤로 그들을 지켜보던 일본인 학생들도 키득거리며 저들끼리 속덕거리기에 바빴다. 조선인 학생들은 쿵광거리는 심장박동을 주먹을 움켜쥐는 것으로 참았다. 어른들은 한숨을 쉬거나, 담배를 깊게 빨며 창밖을 내어다 봤을 뿐이었다.

그 때 박기옥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이광춘이 후쿠다 슈조를 쏘아보며 외쳤다.

“아녀자에게 함부로 대해서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

“조선징 놈들한테도 여자가 있던가?”

낄낄거리던 후쿠다 슈조의 안색이 바뀌며 이번에는 이광춘의 땀을 잡아챘다.

“아이고, 어무니!”

후쿠다 슈조는 기수가 말에 채찍을 휘두르듯 박기옥과 이광춘의 땀을 이리 저리로 휘둘렀다. 그 때마다 그녀들의 머리도 이리 저리 휘청거렸다. 박기옥과 이광춘은 땀기가 더 이상 당겨지지 않게 머리를 잡았다. 잔머리가 흘러나와 그녀들의 얼굴을 괴롭혔다.

열차의 일본인 학생들은 후쿠다 슈조 패거리의 모습에 박수치며 열광했고, 조선인 학생들은 저마다 주먹을 쥐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어른들은 애써 외면하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담배만 하얗게 태웠을 뿐이었다. 후쿠다 슈조는 조선으로 이주 온 대지주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건드리면 피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열차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비웃음과 비겁한 침묵과 어쩔 줄 모르는 울분과 서러움과 한탄과 어우러져 이상한 빛을 만들어냈다. 그 때였다. 이상한 햇살이 만들어낸 빛무리를 깨고 한 학생이 일어섰다.

“후쿠다 슈조! 누님들에게서 손을 떼.”

술렁이는 열차 속에서 반듯하게 교복을 차려입은 남학생이었다. 이제 막 열다섯을 넘어 보이는 그 남학생은 박기옥의 사촌 동생 박준태였다. 후쿠다 슈조는 갑작스런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박기옥과 이광춘의 땀을 놓쳤다.

“어, 어마! 주, 준태로구나!”

박기옥은 사촌동생이 자신이 일본인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몸 둘 바를 몰랐다. 또 한편으로는 후쿠다 슈조에게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다. 부끄러움과 분노는 땀기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더 아프게 박기옥의 가슴을 찔렀다.

“누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후쿠다 슈조를 무시한 채 박준태는 박기옥과 이광춘의 안부를 물었다. 처음에는 후쿠다 슈조 패거리가 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았구나 싶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광춘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빼고 후쿠다 슈조 패거리 쪽을 보았더라면. 박준태의 눈동자가 찾는 그 곳에 박기옥과 이광춘이 땀을 잡혀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박준태는 일어섰던 것이었다.

박준태의 물음에 박기옥은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글썽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놓칠 리 없는 박준태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손수건을 건넸다. 언젠가 그의 생일날 박기옥이 주었던 하얀 손수건이었다. 머뭇거리며 박기옥이 손수건을 받았다.

“너 이 자식! 이 후쿠다 슈조를 뭘로 보는 거야!”

한동안 박준태를 노려보기만 하던 후쿠다 슈조의 입이 열렸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하며 박기옥을 향해 기울어져 있던 박준태의 어깨를 밀쳤다. 박준태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쓰러질 뻔하였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자신이 다치는 것보다 하마터면 박기옥과 이광춘이 다칠 뻔했다는 것이 더 화가 나는 박준태였다. 그는 뻔쳐오르는 분노를 후쿠다 슈조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주먹에 풀었다.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창백했고, 손톱은 주먹 왼 안쪽 살을 패일 듯 힘을 주고 있었다.

“내가 조센징 계집과 놀아보겠다는 데, 어디서 참견 인거냐!”

“조센징? 우리가 너희 놈들의 노리개라더냐!”

“노리개만도 못한 놈들이 조센징 아니던가?”

비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후쿠다 슈조가 ‘조센징’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조.센.징.”

후쿠다 슈조를 시작으로 일본인 학생들도 한마디씩 했다.

“조센징!”

“조센징!”

“조센징!”

열차 안 가득히 ‘조센징’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 하지 못해!”

박준태가 소리쳤다. 일순간 열차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한 번만 더 조센징이라는 말을 하면 가만있지 않을 거다.”

“하! 뭐라고?”

후쿠다 슈조는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박기옥의 땡기를 다시 잡았다.

“바까야로, 조센징!”

“아얏!”

박준태의 눈에 불이 붙었다. 더 이상 앞에 있는 후쿠다 슈조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 자식!”

말보다 손이, 아니 분노가 가득한 주먹이 후쿠다 슈조의 턱에 닿았다. 사촌누이 박기옥을 모욕한 것에서 오는 분노가 아니었다. 조선의 분노였다. 빼앗긴 국가의 백성으로서 품고 있는 설움이었고, 한이었고, 뽀쳐오르는 분노였다. 한 번 끓어오른 박준태의 분노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박준태의 주먹은, 꽉 쥐고 있었던 뜨거움은 한 번, 두 번, 세 번 후쿠다 슈조를 강타했다.

박준태와 후쿠다 슈조를 시작으로 해서 열차 안의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과의 주먹다짐이 시작되었다. 조선말과 일본말이 섞인 열차 안은 전쟁터와 다름없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생모가 날라 다니고, 가방 대신 메고 다니던 보통이가 주먹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어른들은 어쩔 줄 몰라했다. 그들이 사건을 무마하기엔 이미 사태가 커져버렸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며, 혹은 어정쩡하게 서서 기차가 역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열차가 광주역에 도착한다는 비명을 질렀을 때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열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이 향한 곳은 학교가 아닌 광주 시내였다. 일본인 학생들은 뒤를 돌아보며 내빼기에 바빴고, 식을 줄 모르는 분노에 찬 조선인 학생들은 그들을 쫓기에 바빴다.

“저 새/끼들 잡아!”

“오늘 한 번 죽어봐라!”

“와아아!”

조선인 학생들에게 잡힌 일본인 학생들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밟혔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일본인들은 기겁을 하고 달렸다. 한편으로는 다시 뒤돌아서 조선인들과 주먹다짐을 하기도 했다.

“조센징들이 미쳤나!”

“경찰 불러. 경찰!”

조선인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당해온 설움은 그들에게 와서 그대로 분노가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커져서 쌓여 뜨거운 분노가 되었다.

광주 시내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들의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빨리

광주 경찰서로 전해졌다. 찢어질 듯 소름끼치는 호루라기 소리가 하늘을 메웠다.

‘빼이이익,’

‘빼이이익이익’

젓빛 제복을 입은 경찰들은 광주 시내의 한복판에서 싸우던 학생들을 모두 연행해갔다. 학생들은 잡혀가지 않으려 달렸다. 그러나 시내 곳곳이 다니던 일본 경찰들과 고나폴들에 의해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정오 무렵, 일본인 학생들만이 경찰서를 나섰다. 그들은 얼굴에 시퍼런 멍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열한 웃음을 피식거리며 경찰서의 계단을 내려갔다.

“빌/어먹을 조센징!”

후쿠다 슈조는 땅바닥에 침을 뱉으며 경찰서를 뒤돌아 봤다.

“그거 알아? 세상에서 때려야만 말을 듣는 세 가지?”

“그게 뭔데, 후쿠다?”

“북어와 여자와, 조센징! 킬킬.”

“다른 건 몰라도 조센징만큼은 인정된다. 킁킁.”

일본인 학생들은 고개를 젓혀가며 소리 높여 웃었다. 그들 곁을 지나는 조선인들은 어둠이 가득한 얼굴로 주먹을 쥐며 소리 없이 갈 길을 갔다.

경찰서의 좁아터진 유치장에 조선인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본인 학생들과 싸워 생긴 상처보다, 경찰들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가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박준태가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같이 싸워줘서 정말 고맙다.”

얼굴에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준태는 주위 다른 학생들을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 서로 눈짓을 해가며 자신들이 아침에 한 행동에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빼앗긴 조국에 대한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재차 확인하고 있었다. 빼앗긴 조국 앞에서는 지난날에 다투했던 친구도 더 이상 마음 상하며 토라질 대상이 아니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조국을 찾아가야 하는 동지였다.

“준태야, 누님들은 어떻게 되었어?”

“학교로 가셨을 거야. 원체 조용하신 분들이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하하, 나는 준태도 원체 조용해서 그렇게 나설 줄 몰랐는데.”

“조용하고 시끄러운 것은 나라 잃은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다만 마음에 어떤 애국심을 가지느냐가 문제인 거지. 나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같아, 너희들은 어때.”

“나 역시 동감이야.”

“지금 이 어지러운 시국에서 우리도 뭔가 했다는 게 나는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들은 쉽게 풀려나지 못했다.

경찰서 앞에서 그들의 부모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설이나 추석 때나 입던 깔끔한 옷을 입은 부모들이었지만 얼굴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아버지들은 연거푸 담배연기를 애꿎은 바닥에 내뿜고 있었고, 어머니들은 하염없이 눈물로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혹시나 했다. ‘광주 시내에서 학생들이 크게 다뤘다더라. 그런데 조선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을 공격했다더라. 경찰들이 조선 학생들만 다 잡아갔다더라. 학생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더라.’ 등의 무성한 소문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왔더랬다. 아니나 다를까. 하교 시간이 한참 남은 정오 무렵에 박기옥과 이광춘을 비롯한 학생 여럿이서 마을로 뛰어 들어왔다.

“삼촌, 삼촌! 지금, 준태, 준태가 잡혀갔구만요. 혁, 혁.”

숨 찬 목소리로 박기옥이 가장 먼저 박성춘의 집으로 달려와 전했다. 박성춘은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마냥 떨어진 심장을 달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대략 잡혀갔을 만한 아들 친구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경찰서로 갈 만한 인원을 모았다.

아버지들은 연신 담뱃대를 물며 길을 걸었고, 어머니들은 이미 젖을 대로 젖은 천으로 눈물을 닦으며 길을 걸었다.

경찰서 앞, 부모들을 막아선 것은 무장한 경찰들이었다. 아버지들이 앞에 나섰다.

“아이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이 아니라 폭도들을 길러냈더군!”

경찰들은 그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만을 하며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다.

“얼굴만 보게 해 달라니까요! 무사한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결국 박성춘은 큰 목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의 태도에 경찰들은 더욱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통역관을 불러 말했다.

“돌아갔!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폭도라고 간주하고 잡아갈 테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조선인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지금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경찰서까지 갔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말 좀 제대로 전해 주면 안 되겠소?”

통역관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말했다.

“내가 말을 잘하면 당신네들이 후쿠다님보다 더 좋은 뒷배가 될 수 있겠소?”

“허, 참…….”

“그, 그래도 한 번만 더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들은 다급했다.

“돌아가시라니까! 귀찮게 왜 이래?”

부모들은 너무나 단호하게 면회를 거절당했다. 그러나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경찰서 앞에서, 경찰들을 마주하고서 부모들은 하나 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지금, 뭐하시는 거요!”

일본 경찰들의 눈치를 보며 통역관이 외쳤다.

“우린, 아이들이 무사한 지 알아야겠소이다.”

부모들 중 가장 연장자가 말했다. 박기옥의 아버지였다. 그는 양반다리를 하고 반듯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눈을 감은 이유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동요하지 않아야 동생 박성춘도, 그리고 그를 따라 나온 다른 부모들도 동요치 않으리라 생각했다.

“거참, 돌아가시라니깐.”

통역관은 혀를 내두르며 일본 경찰들에게 사정을 얘기했다. 경찰들도 그들의 태도에 놀랐는지 이래저래 상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높아 보이는 직급의 경찰이 통역관에게 통역을 시켰다.

“어이, 거기 중에서 대표자 나와 보시오.”

연장자는 박성춘의 어깨를 짚으며 고개를 가만히 끄덕였다. 박성춘이 앞으로 나갔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으니 당신이 들어가서 폭도들의 상태를 보고 나오시오. 그리

고 집에 가서 경찰의 처분을 기다리시오. 더 이상은 협상치 않을 것시오.”

“알겠소.”

박성춘은 남아 있는 부모들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큰 숨을 들이마시고 경찰들을 따라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박준태!”

경찰의 부름에 박준태가 다리를 절뚝이며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동자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아, 아버지.”

“그래, 그래, 애비다. 많이 다쳤냐.”

“아닙니다. 저보다 다른 친구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야, 이렇게까지,”

“기옥누님과 광춘누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너를 탓하지 않는다. 너는 훌륭한 일을 한 거야.”

박성춘은 철창 안으로 손을 넣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피가 엉겨붙은 아들의 주먹을 쓰다듬었다. 마냥 어리기만 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어지러운 세상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랐다. 암전하게 성공하기를 바랐다. 그런 아들이 불의에 저항하고, 빼앗긴 조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마주 잡은 손을 통해서 느끼는 박성춘이었다.

박준태의 손은 뜨거웠다. 젊음의 피와 분노의 피가 빠른 속도로 그의 혈관 속에서 거칠게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아버지 박성춘의 손을 맞잡으며 그는 더 이상 이 시국을 모른척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죽어 없어지는 그 날까지 항거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거라. 너와 네 친구들을 기억하거라. 너흰 분명 옳은 일을 한 게야. 그러니, 왜놈들이 뭐라고 하건 끝까지 살아 나와야 한다. 아버지들이 어떻게든 힘을 써 보마. 분명 방법이 있을 게야.”

“아버지…….”

박준태의 총혈 된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박성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어이!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야! 떨어져!”

통역관이 박성춘의 어깨를 치며 외쳤다. 박준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박성태의 뒷모습은 일본인들과 달랐다. 일본인들에 빌붙어 유세 떠는 조선인들과도 달랐다. 이름 있는 양반가문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부를 가진 집안이 아니더라도 박성태의 뒷모습에서는 당당한 아우라가 풍겨져 나왔다.

“지금 아버님들께서 왔다 가셨어. 어떻게든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어떤 매를 맞아도 우리, 살아나가자. 그러나 왜놈들에게 굴복하지도 말자. 아버님들은 왜놈들과 싸운 우리들을 자랑스러워하시니까.”

구석자리로 돌아온 박준태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 강인한 빛이 스며 있었다. 그 빛은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에게로 옮겨져 하나 둘 맑은 눈빛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상처 가득한 얼굴로 작은 미소로 지어보였다.

창살 너머로 이제 막 하늘의 끝자리에 자리 잡은 붉은 노을이 비쳐 보였다. 노을은 하늘을 태워버릴 듯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노을 아래에서 조선의 온 땅은 밤이 지나 새로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형수의 일기

남 윤 진

“야, 패스! 빨리 패스!!”

공이 나에게로 왔다. 바람에 식어 없어지는 목덜미로 흐르는 땀방울. 내 발에 들어온 공을 오른발로 정확히 때려 넣는다. 골이다.

“와아! 이세준! 이세준!”

관중석에서 여자애들의 환호성이 들려온다. 그리고 이어지는 휘슬 소리. 종료 1분전 나의 골로 인하여 우리 반은 2:1로 승리하였다. 1골 1어시스트. 내가 봐도 훌륭한 기록이다. 너무 건방떠는 것 같아도 뭐 어쩔까. 사실인데.

“요율, 이세준이. 오늘도 한 건 하네”

돼지다. 무지하게 먹을 걸 밝히는 솔빈이가 땀에 절은 채로 웃으며 말한다. 반 대항전에서 이기면 햄버거를 쓴다는 담임쌤의 말에 무지하게 열심히 뛰었나 보다.

“푸훗, 새/끼. 햄버거 먹겠다고 열심히도 뛰었네”

반 대항전을 마치고 우리는 종례시간 때 수고했다는 담임쌤의 말과 함께 불고기버거와 캔 콜라 하나씩을 받았다. 남는 버거를 하나 더 받았다고 좋아하는 돼지의 모습이 진짜 돼지 같다.

참, 내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서 소개부터 하겠다. 이름은 이세준. 청민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다시피 축구를 좋아하고 제일 잘한다. 뭐, 운동밖에 할 줄 모르는 꼴통은 아니어서 내년 입시 때 대학을 진학할 생각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이겨서 기분이 좋은 상태고, 내 입에는 불고기버거 하나가 물려져 있다. 이런 것 까진 안 말해도 되려나.

집에 가는 길에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또다. 오자마자 가방을 내던지고 곧바로 화장실에 달려가서 쏟아냈다. 버거가 탈이 났나 싶다. 요새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설사만 나오는 것 같다. 장염이려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

“다녀왔습니다”

“세준ㅇ..쿨럭. 세준이 왔냐?”

“엄마, 기침 아직도 나와? 내일 나랑 병원 같이 가자”

“아냐, 아냐. 병원은 무슨 그냥 감기 같은데”

어제부터 엄마가 기침을 좀 심하게 하는 게 심상치 않다. 감기라고는 하는데 늦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감기가 웬 말인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다고 검사라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더워죽기 일보 직전인데 감기는 무슨 감기. 됐고 내일 토요일이니 아침에 병원이나 갔다 오자. 나도 요새 배가 계속 아파서 가려고 했었어”

“어이구, 그래 알았다 윤석아”

내일 딱히 할 것도 없었고 집에서 뒹굴기만 할 것 같았다. 뒹굴기만 하는 것보단 엄마랑 병원데이트라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나도 요새 배가 계속 아픈 게 위염이라도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축구를 몇 시간씩 뛰어도 땀땀했는데 오늘 대회 한 번 했다고 벌써 기진맥진. 젊은 놈이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다. 아직 9시도 되지 않은 초저녁인데 졸리기 시작한다.

“이세준! 일어나야지!”

엄마가 내 몸을 흔들어 깨운다. 핸드폰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9시다. 내가 언제 잤더라. 10시간도 넘게 잔 것 같은데.

“참 잘도 자더라, 너 엄마랑 병원 같이 가자며. 일어나야지”

“맞다. 병원가기로 했지. 아 요새 잠이 너무 많아졌어요”

부랴부랴 옷을 입고 병원에 갈 준비를 한다. 이를 너무 빨리 닦느라 잇몸을 너무 세게 닦았나보다. 살짝 찢어져 칫솔에 피가 묻어 나온다.

“에이 씨, 서두르다가”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는 병원이라 부리나케 병원으로 갔다. 사람이 꽤 많았다. 주로 노인 분들이 많아보였다.

“앞쪽에서 대기번호 부르시면 들어갈게요”

옷차림으로 보아하니 병원 내 봉사자인가 싶은 내 또래여자아이가 웃으며 안내해주었다. 엄마의 대기번호는 139번, 내 대기번호는 140번이었다. 보자, 지금이 129번이니 아직 한참 남았나. 쌓여진 카톡을 읽고 답장을 하다 문득 봉사하는 여자애얼굴을 들여다봤다. 꽤 귀엽게 생겼다. 나랑 동갑이려나. 아니면 연하? 저기 저 남자는 뭘 수업을 저리 길렀나.

“땡-동”

대기번호 139번이다. 병원에 온 사람들이 꽤 됐기에 사람들을 구경하다 보니 금방 대기번호가 돌아왔다. 바로 연이은 진료가 나서서 엄마랑 같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진료실 의자엔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안의 젊은 남자의사가 앉아 있었다. 젊은 나이에 주치의가 된 것으로 보아 엄청난 실력파일 것이라 생각하며 진료실 문을 단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나긋나긋하면서도 환자를 안심시키는 목소리라 생각했다. 의사는 보고 있던 엑스레이 사진에서 우리 쪽으로 눈을 옮겨 왔다.

“저.. 목도 칼칼하고 기침도 나는 게 감기인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감기치고 오래가서 우리 아들내미가 걱정됐나 봐요. 어우 이놈이 병원가라고, 가라고 들들 뽕길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왔습니다”

“하하, 네. 참 효자아드님을 두셨네요. 어머니, 우선 아- 해보시겠어요?”

진찰받는 엄마를 지켜보며 의사가 참 싹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아무래도 저 싹싹한 성격이 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비교적 어린나인데도 주치의가 됐을거라 추측해본다. 지적이면서도 너무 지적이지 않고 서글서글한 그의 인상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음, 열도 없으시고. 다 좋은데 목이 많이 부었네요. 가래도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거담제랑 감기약 처방해드릴게요. 덩다고 에어컨바람 너무 자주 쐬시지 마시고요”

다행히도 진단은 목감기로 나왔다. 하긴 여름이라고 얼마 전부터 얼음을 와그작와그작 씹어 먹더니. 인과응보다. 이 기회를 구실 삼아 무뚝뚝한 아빠를 대신해 잔소리 좀 해줘야겠다.

“참, 어머니. 약은 4일치 처방해드렸으니까, 드시고 계속 감기증상 있으시면 다시 찾아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의 진료가 끝나고, 내 진료차례가 되어서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곧이어 내가 자리에 바로 앉았다.

“세준이? 이름이 참 멋있네. 세준이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

바로 앞에서 들으니 더 편안해지는 목소리이다. 본래 활기찬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받을 때면 무엇인가에 쫓아 어디가 아픈지 상세히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 의사 분이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요 근래에 이상하게 소화도 안 되고, 자주 화장실에 들락거려서요. 화장실에 가도 계속 설사만 나오구요”

“음, 최근에 꺼림칙한 음식 같은 거 먹은 적 있니? 상한 것 같거나 오래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없다. 오늘 아침은 허겁지겁 나오느라 먹지 못했고, 어제 먹은 햄버거만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다.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장염이나 위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의사선생님은 배를 걷어 올리라고 한 뒤, 배에 청진기를 몇 차례 갖다 대셨다. 뒤이어 입을 벌리라고 한 뒤, 진찰을 하셨다.

“요새 고등학생들이 워낙 입시공부에 열심이다 보니, 신경성 위염 같은 게 발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도 그 쪽 일수도 있겠네. 계속 속이 아프면 우리 병원에선 정밀검사를 할 수 없어서 대학병원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네.. 그럼 따로 약은 처방 안 해주시나요?”

“우선 위보호제 같은 것으로만 처방해 줄 거야. 약 먹고도 계속 아프면 내가 말한 대로 대학병원으로 가고. 밥 꼭꼭 씹/어 먹어라! 과식하지 말고!”

무언가 확실한 처방은 없었지만, 의사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한차례 안심이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구벽 인사를 하고 엄마와 함께 진료실 문을 닫고 나왔다. 밥 좀 꼭꼭 씹/어 먹으라는 엄마의 잔소리와 함께 처방전을 기다리며 배를 어루만져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화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안감이 피어오르지만, 됐다. 우선 4일분의 약이 있으니 후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의 감기증세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내 증세는 뭐랄까, 진전이 없었다. 친절하신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주신 약을 먹고, 음식을 평소 먹는 것보다 천천히 씹/어 먹어도 여전히 설사는 잦았고, 화장실을 빈번하게 들락날락거렸다. 병원에 다녀온 지 일주일일이 지났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고 나오는 찰나였다.

“세준이 너 진짜 대학병원 안 가 봐도 괜찮겠니? 계속 배가 아프면 공부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엄마였다. 따로 야자나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자습을 하는 나는 엄마와 붙어 있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많았다. 아빠는 잦은 야근 탓에 통 대화할 일이 없었다. 뭐,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임을 나는 알고 있기에 서운하다거나 그러진 않다. 때문에 어머니는 하나뿐인 자식인 나에게 더 걱정이 가셨을 터이다.

“괜찮아요, 엄마. 선생님 말대로 진짜 신경성위염 아닐까? 요새 공부가 안되긴 해서. 헤헤”

불안했다. 누구보다 불안한건 나였다. 왜,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평소보다 다르게 아픔이 찾아오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싫었다.

“이번엔 안 돼. 너도 전에 한번 엄마 병원 끌고 갔으니, 엄마도 너 병원 한번 끌고 가야 되겠다”

“괜찮은데.. 알았어요. 내일 갈게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내심 계속 불안했던 마음을 엄마에게 들키기라도 한 걸까. 엄마가 함께 병원에 가준다니 불안감이 가시는 기분이다. 내일 병원에만 가면 이 불안함도 모두 씻어지겠지. 오늘날만큼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을 것 같다.

“세준아. 일어나야지”

커튼 틈 사이로 비추는 햇살 덕에 눈이 부시다. 이른 아침도 아닌데 요새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부쩍 힘이 든다. 142번. 처음 타는 번호의 버스를 타 자리에 앉는다. 출근시간이 아니었기에 두 자리가 붙어있는 좌석이 있었고, 엄마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대학병원으로 가는 길은 멀었다. 엄마는 한 시간은 잡아야한다고 했다. 처음 가는 대학 병원이라 뭔가 떨린다고 말해보았더니 엄마는 지금 가는 곳이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말해주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지사겠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즐기기도하고, 또 껌다가 다시 졸았다. 어깨가 흔들리는 감각에 깨어 일어나 보니 엄마가 병원에 다 왔다고 알려준다. 몽롱한 상태로 이내 버스에서 내렸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약 5분정도의 거리였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침울한 표정의 환자와, 그리 좋지 못해 보이는 휠체어를 탄 노인 분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병원은 지은 지 꽤 되어 보이는 구식건물과, 하얀 페인트칠이 돼있고 깔끔해 보이는 신식건물이 마주보는 구조로 되어있었다. 안내표를 보았다. 내가 검진을 받을 내과는 신식건물에 있는 것 같다. 병원 내로 들어가니 아픈 사람들이 많아보였다. 순간 이곳에선 나의 아픔은 아픔으로도 취급해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늘 하는 잡생각이다.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내과는 3층이었다. 마침 시야에 들어온 엘리베이터의 빨간색 네온사인은 1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내과엔 환자로 가득 차있었다. 며칠 전 갔던 병원에서의 환자수를 보고도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접수와 수납도 자동화 기기에서 하게 되어 있었다. 촌놈같이 보이겠지만 자동화기기는 여태까지 나름 건강했었던, 그렇기에 병원에 들릴 일이 자주 없었던 나에게 우리나라 병원시스템에 감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에는 충분했다. 각 진료실마다 전자 대기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곧 내 이름이 올라왔다. 내가 들어간 진료실은 이동욱 교수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진료실이었다.

“안녕하세요”

4~50대 정도로 보이는 눈이 커다란 분이셨다. 턱에는 마스크를 걸치고 계셨고 먼 발치에서도 거뭇거뭇 보이는 수염이 더럽다는 느낌보다는 지적인 인상을 주었다.

“네, 어떻게 오셨지요?”

의사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해주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말했던 대로 동일하게 말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며칠 전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이다.

“음.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 증상이 꽤 된 모양인데. 단순한 신경성위염으로 치부해 버릴 일은 아닌 것 같네. 우선은 지사제를 처방해줄게요”

의사선생님은 말을 끊고 의사가운 주머니에서 고동색 만년필을 꺼내 작은 메모지에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했다.

“우선 정밀검사를 해봐야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네요. 어머니가 같이 여기에 적힌 곳으로 가서 MRI를 받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진료실에서 나와 병원 내에 벽에 붙여진 이정표를 보고 어렵지 않게 MRI를 찍으러 갈 수

있었다. 처음 받아 본 MRI는 신기하기 그지없었다. 둥그런 원통 같은 곳에 몸을 누이고, 잠시 뒤 기계 속으로 들어갔다.

“팔은 갈비뼈 옆에 붙여주세요”

아마도 촬영하시는 분의 목소리인 것 같다. 이내 팔을 붙이고 MRI기계에 천장을 응시해본다. 무엇인가 불빛이 나는 게 돌아가고 있다. 계속 보고 있자니 내 몸을 보여 지는 느낌이라 썩 좋은 느낌은 안 든다. 계속 이 기계 안에 있으니 몽롱해져 온다.

“다 됐습니다. 일어나셔도 좋아요”

이런. 내가 언제 잤더라. 시계를 보니 30분 가량 촬영을 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듯이 들어갔다 나오면 될 줄 알았건만. 역시 비싼 만큼 촬영도 오래하는구나 라고 또 쓸데없는 잡생각을 해본다. 나와 보니 대기석에서 엄마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집게손가락을 치켜세워 엄마의 이마를 콕 찍어본다. 파마기가 있는 앞머리가 부슬부슬한 느낌이다.

“어어. 세준아. 촬영 끝났니? 계속 기다리다가 깜빡 자버렸네”

“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0분정도 하더라고요. 빨리 가자. 나 배고파요”

“그래 이왕 큰 병원 와서 돈 쓴 김에 맛있는 거나 먹고 들어가자”

엄마와 나는 병원을 나와 근처 수제 버거집에서 버거를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지사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먹은 햄버거는 여지없이 설사로 돌아와 날 변기로 가게 만들었다.

‘약이 잘 안 드는 모양이네. 앞으로는 먹기 미리 전에 먹어놔야겠다’

변기에 앉아 나름의 처방법을 생각해 낸 뒤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았다. 정말 이대로 괜찮아지는 걸까? 씻었다고, 지워냈다고 생각한 불안감은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갔다. 병원에 가야 하지만, 축구 동아리에서 선배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도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옆 학교와 하는 친선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때문에 가기로 한 병원에는 엄마 혼자 가서 검사결과를 듣고 오기로 했다. 물론 못 간다고 하니 잔소리는 꽤나 들었지만 말이다. 경기는 순조로웠다. 전후반30분 총 1시간의 경기였고, 3:1로 우리 팀이 승리했다. 골키퍼 홍민이 형은 3:0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 아쉬워했다. 내가 상대 팀 입장이어서 이 소리를 들었더라면 정말 알미웠었을 것 같다. 경기를 이기고 난 뒤 들려오는 휘슬을 들을 때의 기분은 언제나 짜릿하다. 집에 오는 길에 내가 넣었던 중거리 슈트를 회상하며 갔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슈트였다. 알고도 못 막는다 해야 하려나. 낄낄.

“암입니다”

“뭐..뭐라구요? 제대로 확인한 것 맞으세요?”

“대장암 3기입니다. 이미 4기로 넘어가려는 추세예요. 자세한 건 향후과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보이는 것만 보시더라도 이미 암세포가 크게 번져있는 상태예요”

항상 환자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다. 믿지 않는 환자. 수긍하는 환자 등. 세준이의 어머니는 전자의 모습이였다. 의사로써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건 정말 뭇 같은 일이다. 의사 생활을 하며 아직 학생인데 암이 발발한 경우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다. 세준이의 경우는 확실히 심각했다.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향후 5년 내 생존할 확률이 극악해 보였다. 다행히도 오늘 세준이가 오지 않았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소식을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은 꽤 불쾌하다. 특히 당사자 앞에서 말이다. 세준이도 곧 알게 되겠지만 당사자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사형선고를 하는 느낌이니까. 세준이 어머니는 이것저것을 물은

채 돌아갔다. 강한 어머니였다. 보통 크게 낙담하기 마련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언제 다시 찾아올지에 대해 묻고 떠나셨다.

집에서 폰 게임을 하고 있었더니 엄마가 돌아왔다. 오늘 경기에 대해서 말할 생각에 한껏 부풀어서 나도 모르게 기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헌데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계셨다. 시선을 나를 보고 계셨지만 엄마를 계속 보고 있자니 나도 따라 숙연해지는 표정이랄까.

“세준아”

“엄마,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난 오늘 시합에서 한 골 넣어서 지금 엄청 업 돼있는데”

“세준아, 너 암이래”

“뭐?”

잘못 들었나 싶었다. 에이 무슨 이런 드라마 주인공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겠나. 생각하는 찰나였다.

“대장암 3기래. 당분간 학교는 쉬고 엄마랑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놀라운 내용을 말하는 엄마의 표정은 무섭도록 차분했다. 장난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이라고? 18살에 암? 믿기지 않았다. 엄마에 말해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네..”

내 방에 하고 있던 폰 게임을 꺼버린 채 침대에 누웠다. 울컥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울고 있었다.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세상이 싫었고, 화가 났다. 안방에서 엄마가 코를 세차게 푸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다. 사람에게 화를 내는 기분과는 다른. 내 일은 일요일이었다. 교회에 가는 날. 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화가 났다. 내 기분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불을 두 손으로 쥐어 잡으며 얼굴을 파묻고 꺽꺽대며 울었다. 아무래도 난 평소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을 것 같다.

島山

이 단 비

흐트러짐 없는 정장을 입고 녹이 쓴 가방을 품에 안고 도산은 방에서 나왔다. 이해련 여사는 그의 옆에서 그의 모자를 한손에 꼭 들고 마중을 하러 같이 나온다. 모자가 흐트러지지 않게 챙을 잡고 조심스레 그에게 물어본다.

“이번엔...어디세요?”

“상해”

“굴...다 익어갑니다.”

“...”

“다시 오셔서 따셔야죠.”

도산의 가족들과 여러 한인들이 같이 관리하는 굴나무. 도산이 집에 오면 걱정하는 것은 굴나무도 제외는 아니었다. 도산은 부인에게 매우 부드럽게 웃어주며 모자를 받아든다. 그 미소가 온전히 많은 대답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이번에도 믿는다. 다시 돌아와서 굴을 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계단을 내려와 문으로 걸어가는 도산을 작고 여린 두 손으로 그를 잡는다.

“아버지”

“필립아.”

“...가족은 언제 보살피시려합니까”

그의 아들 필립이었다. 도산을 보고 있는 필립은 매우 간절해 보였다. 이제 가면 다시 언제 볼 수 있을까. 필립은 조선의 한 사람으로의 자신의 아버지를 봐왔다. 조선의 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를 볼 수 있는가를 두 손을 잡고 물었다. 여린 두 손을 꼭 잡고 도산은 아들 필립을 보며 말한다.

“아들아.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우리가족을 돌보는 건 네 몫이다.”

“...”

손을 놓는 순간 필립은 아버지로서의 그를 놓아주어야했다. 작고 여린 두 손이 떨어왔다. 도산이 마저 한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필립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다녀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도산은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웃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나간 집에는 한참동안 그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항구로 향하는 와중에도 도산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가족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상 그랬지만 더더욱 적막이 너무했다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항구에 도착하여 도산은 배에 올라타고 가족들이 보이는 곳으로 향했다. 그가 보이자 딸인 수산이 그를 부른다.

“아버지!”

도산이 자신의 가족들이 보이는 곳으로 고개를 내민다. 찰칵 소리와 함께 그의 웃고 있는 사진이 담긴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란 말에 많은 의미를 담아 그에게 말하고 그도 많은 의미를 담긴 미소를 보냈다. 도산이 안보일 때까지 그들을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가 보이지 않아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상해로 날아와 여러 일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 상해 공원에서 열리는 대장절축제날이 다가왔다. 오늘 이 축제 매우 불길하다, 누군가가 또다시 희생되겠구나. 내가 가봐야 하는데 “가봐야겠다.”

“어디 가시려합니까”

“공원에 가야겠다.”

“안됩니다. 스승님. 김구 선생께서 오늘 스승님을 그곳에 보내지 마시라 했습니다.”

“...”도산은 자신의 제자들의 만류에 그곳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 지금쯤 아마 누군가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했을 텐데 나는 왜 숨어있는가. 그날 윤봉길 선생의 의거가 행해졌다. 상단에 올라와있는 고위급일본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지고 그는 붙잡혔다고 한다. 의거 6시간 후, 갇은 고문과 신문으로 윤봉길 의사가 이유필이라는 사람이 부탁했다고 자백했을 때, 이미 일본경찰들은 이유필과 그의 아들 이만영 집까지 뺏어있었다. 그 사실을 아직 잘 모르던 한 사내가 이만영 집에 다다르고 있었다.

“소년동맹단이라...”

어린사람들도 독립을 위해 일 해주는데 기부금정도야라는 생각을 하며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기부금을 가지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집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불렀다. 문이 열리고 도산은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아니 그러려고 하였다. 이만영도 그의 아버지인 이유필도 아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문을 열어주었다. 미소를 뒀던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보이지 않았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일본군들이 도산을 끌고 서대문형무소에 갔다. 4년형을 선고받았다.

1937년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에 비례하여 일제는 감시가 더 심해졌다. 국내 흥사단을 말살하기 위해 동우회 150여명을 잡아간다. 6월 28일 결국 도산도 잡혔다. 11월에는 서대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일본군과 자신사이에 남은 것은 체력싸움인데 그 체력싸움을 지치게 하는 것인지 바닥에는 빨간 피가 흥건하고 지옥보다 더한 곳이 도산의 눈앞에 펼쳐져있다. 이 피들이 다 조선의 것인가 하고 도산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나무로 된 의자에 앉아 그는 일본군을 바라보고 눈을 피하지 않는다. 고된 고문은 시작되었다. 도산의 앞에 있는 사람은 일본인도 아닌 조선인 일본군이였다. 그는 도산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네놈이 윤봉길의 배우라고 말해라!!”

“독립을 위한 길에 배우가 어디 있겠나.”

“이놈이 그래도!!”

“...자넨”

“...”

다른 고문을 하기 위해 창을 달구던 일본군을 힘겹게 도산이 불렀다. 뒤를 돌아 그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다시 세우고 일본군을 바라보며 차근차근 말을 이어나갔다.

“조국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나”

“뭐?”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

“목숨이 붙어있는 한 대한의 독립을 위해 살 것이다”

살구 색이던 얼굴이 달궈진 창처럼 빨갱게 물들어 갔다. 한 점의 부끄럼이 없어야 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조선인 일본군은 자신을 능멸했던 생각밖에 없었다. 다시 고문을 당한 그는 소리도 내지 않고 그를 쳐다보았다.

많은 고문에 시달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는 많이 지쳐갔다. 작은 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그의 유일한 손님이 되었다. 그때, 저 멀리지만 가까이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감옥의 모든 수감자들과 일본인들이 저마다 귀를 기울인다.

“...마르고 닳도록”

한순간에 수감소안은 떠들썩해졌다.

-이게 무슨 노래야

-애국가다! 애국가야!!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기립하여 노래를 부른다. 일본군들은 문들을 치며 조용히 하라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번 시작된 애국가는 4절이 끝날 때까지 계속 불러졌다. 찬 바닥에 앉아 따뜻하게 들려오는 제자들의 노랫소리에 도산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린다. 자신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향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도 따라 부른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스승님! 들리십니까. 저희가 스승님 곁에 함께 있겠습니다. 이 담장 밑에서 스승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들린다, 들려”

그렇게 애국가는 계속 흘러나갔다. 1절부터 4절까지. 밖에서부터 안까지.

다음날에는 일본군들의 경계가 더 삼엄해졌다. 그 경계가 밖에까지 향했다. 자신의 제자들의 애국가 때문인가라는 생각으로 작은 창을 바라본다. 그때 누가 철창문을 툭툭 쳐온다. 도산이 고개를 돌려 서있는 일본군을 바라본다.

“이봐. 당신 지인들한테 우리 일본군이 편지를 받고 있어. 뭐라 하는 줄 알아?”

“...”

“창피하지 않으시오? 동포끼리? 조국을 위해? 웃겨 조국? 망한지 오래인 나란데 조국이라.”

“...”

“독립? 할 수 있을 거 같아? 가능성이 있었으면 내가 이 짓 안하지. 아주 당신 빼내려고 나까지 끌어들이려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래”

자신을 비웃고 자신의 많은 가족들과 조국을 조롱하는 자에게 화가 났다. 도산은 두 주먹을 꼭 쥐었다. 자신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비웃는 그에 화가 났다.

“꼭팔린 줄 알아야지. 알잖아 당신도 죽을 때까지 여기 못나가는 거”

“...될 걸세”

“뭐?”

“독립은 꼭 될 걸세”

“뭐라는 거야”

“내가 죽어도 많은 동포들이 꼭 ... 이룰 거란 말이지”

힘이 없는 그의 말투였지만 그의 말에는 도산의 힘과 많은 이들의 힘이 담겨있었다. 일본군이 가고 그는 책상으로 갔다. 종이를 피고 글씨를 써내려 갔다. 그래 그자 말처럼 나는

못나간다. 나의 힘도 다해간다. 가족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산의 아들 장남인 필립에게 편지를 썼다. ‘내 아들 필립에게’

-내 아들 필립아. 내 눈으로 네가 스스로 좋은 사람 되려고 힘쓰는 모양을 매우 보고 싶다. 좋은 사람됨에는 진실하고 깨끗한 것이 첫째임이니 너는 스스로 부지런한 것과 어려운 것을 잘 견디는 것을 연습하여라. 좋은 사람 되는 법이 좋은 친구를 잘 기르어 두며 좋은 책을 잘 가리어 보는 두 가지가 너무 요긴하니라. 네가 책을 부지런히 보느냐? 쉬지 말고 보아라. 그러나 아무 책이나 보지 말고 특별히 좋은 책을 택하여 보아라. 두 종류의 책을 택하라. 첫째는 좋은 사람들의 사적과 인격을 수양하는데 관한 책이요. 둘째는 네가 목적하고 배우는 지식을 돕는데 관한 책이다. 이 두 가지 성질을 표준 하여 책을 보고 한국 글과 말을 잘 익혀라. 내가 주는 말은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줄 믿노라-

종이를 곱게 접어 자신의 옷 안에 넣어 두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아주 소중히 대했다. 다른 종이를 꺼내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낼 때와 다른 마음으로 남은 동포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갔다.

-나는 죽음의 공포가 없다. 나는 죽으려니와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그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니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 일본은 자기 힘에 지나치는 큰 전쟁을 시작하였으니 필경 이 전쟁으로 인하여 패망하오. 아무런 곤란이 있더라도 인내하시오-

펜을 내려놓은 도산은 한참을 먼 곳만 바라봤다.

한편, 상큼한 귤나무가 가득한 미국에서는 필립과 그의 어머니이자 도산의 아내인 이해련 여사가 함께 있다.

“아버지를!!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다.”

“...”

“수감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부탁해보았고 혹여 조선에 가는 사람들에게도 빼낼 수 있는지 다 물어보았다.”

“...”

“네 아버지는 할 일을 다 하신 거야. 거기까진 거야”

“...다녀오시라 했던 말이에요”

“우린 네 아버지가 못 다한 일을 마저 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다녀오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받지 않았니.”

“...”

“...”

필립은 어머니 앞에서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그때 마지막까지 붙잡았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다른 날처럼 보내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방 안에서 몰래 듣던 수산도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운다.

상해에서도 그를 빼내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였다. 아무도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삼엄한 일본군의 감시, 자신들의 사람들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렇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김우진이라는 자가 주먹을 쥐고 말을 꺼냈다.

“이렇게 스승님을 보낼 순 없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안 되는 걸...”

“...폭탄”

“뭐라”

“남은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

“윤봉길의사께서 남겨놓으신 폭탄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진아”

“이대로 스승님 보낼 수 없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기 전 김구에게 회중시계를 받고 나가기 전 김우진에게 들렸다. 다짐한 듯한 그의 표정을 보고 김우진은 긴장했다. 무슨 일을 자신에게 맡기고 가는 것일까. 어떤 중대한 일일까.

“이 건물 지하에 있네”

“예?”

“폭탄”

“폭탄 말하신 겁니까?”

“내일 내가 못 올지도 모른다.”

“...”

“아마 일본군들이 안창호 선생을 찾을거야”

“...”

“그럼 잡혀가시긴 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데리고 오긴 할 수 있겠지.”

“...”

“그런데”

“...”

“만약... 만약에 말일세...”

“...”

“그렇지 못한다면...그때 쓰게”

“...무얼 말입니까”

“폭탄 말일세.”

굳은 의지를 표현하는 듯 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맞잡고 윤봉길은 떠났다. 김우진은 윤봉길의 말을 듣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폭탄이 있었다. 폭탄을 손에 쥐어 보다가 다시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다. 이 폭탄이 다시 내손에 쥐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랬는데 다시 손에 쥐었다. 동그랗게 생긴 무서운 폭탄을. 자신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옷에 걸친 채 폭탄을 가방에 넣고 도산이 있는 수감소로 향했다. 걸어가는 와중에도 그의 다리 손. 모든 것이 떨어왔다. 이렇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나. 잘못하면 나도 죽고 스승님도 죽고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돌아갈까도 생각했다. 그때마다 스승인 도산이 자신께 해준 말이 떠올랐다.

‘우진아’

‘예. 스승님’

‘자신의 몸과 집을 자신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대신 다스려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듯 자기 국가와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고 주인관념이다.’

‘...’

‘이점을 꼭 기억해 두어라’

‘예. 스승님’

그땐 그게 마지막 가르침인지 몰랐다. 주먹을 다시 꼭 쥐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폭탄을 손에 쥐었다. 그래. 이 가방 안에 있는 폭탄으로 꼭 우리 민족 도산스승님을 구하고 나아가 내손으로 조선도 구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 뒤 조금 더 걷자 수감소가 보였다.

“저자는 뭐지?”

“뭘 땀에 왔냐.”

일본군들이 물었다. 나는 조선을 구하기 위해. 우리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폭탄을 꺼내어 불을 붙이고 천천히 뛰어다가가 폭탄을 문에 던지고 하나는 일본군들 쪽에 던졌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렇지만 폭탄은 터졌고 나는 스승님을 찾아와야 한다. “스승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던 도산.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다. 그때 “...진아”

“스승님?”

“우진아...”

“스승님!!”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달랐다. 너무 마르셨다.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았다. 제가 존경하던 스승님은 곧고 명확하시던 모습인데 순간 울컥했다. 누가 나의 스승님을 이리 했을까.

“스승님. 어서가시죠. 다들 기다리십니다.”

“아니다.”

“예?”

“우진아. 내몸은 내가 잘안다.”

“...”

“난 나가서 나의 할 일은 다 하지 못한다. 이게 나의 끝인 것이야. 얼른 가거라.”

“스승님 제발요 스승님!”

“일본군들이 오고 있다. 시간은 지체되면 안 된다. 가서 김구에게 전해주거라.”

“...”

우진은 도산이 손에 꼭 쥐어준 편지를 받고 자신의 품안에 넣었다.

“같이 가세요. 스승님”

“너까지 붙잡히면 안 된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스승의 부탁이다.”

“...”

“어서 가거라.”

우진은 소란스러워지는 밖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도산에게 한번 절하고 밖으로 나왔다. 도산은 벽에 기대어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우진은 다시 본부로 돌아와 김구에게 편지를 전해 주며 눈물을 흘렸다. 다신 못 볼지도 모르는 도산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몇 달이 지나고 수감소 안에 일본군들이 모여 있다.

힘은 다했다. 이제 날만 기다린다. 일본군들의 말소리가 들려온다.

“곧 죽는 거 아니야?”

“조선 놈들이 알면 또 난리 날거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보내버려야지. 여기서 죽으면 난리칠게 뻔한데”

누워있는 도산을 보고 일본군들은 수군댄다. 일본군들의 말을 듣고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가족들에게는 끝까지 죄가 남는구나. 돌아간다는 약속은 결국 못 지키는구나. 가기 전 가족들의 얼굴은 볼 수 있을까. 날씨는 이리 좋은데 나라는 어찌 이리 어두운건가. 누워있는 도산은 많은 생각을 하는 듯 보였다.

일본군의 말대로 며칠 뒤 그는 병원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아무나 막 만날 수 없었다. 2명을 제외하고 가족도 지인도 일제의 감시에 그는 혼자가 되었다. 쓸쓸한 그의 맘에 편안히 누워 그늘진 얼굴을 한 그는 들어온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아무도 안와”

‘아무도 안 온다.’는 도산의 말에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다. 일본군들이 그의 병실을 감시하고 또 감시하여 그들의 제자들과 지인들 가족들까지 오기 힘들었다. 주위에 사람이 많기로 유명했던 이가 갈 때는 왜 이리 쓸쓸하게 홀로 가는 지 병실에 있던 사람들마저 안타까워했다. 일제의 고문에 지쳐 외로움에 지쳐 그는 독립을 미처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가족, 친구, 제자들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도산을 믿고 싶지 않았다. 많이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하얀 머리숱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죽을 때까지 흐트러짐 없었다.

고 독

임 찬 영

차량 밖에 눈이 쌓인 흰 풍경이 지나간다. 오랜만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나러가는 길이 너무 길게만 느껴진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시부모님과과는 달리 나의 시부모님은 천사라고 불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착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이런 분들 밑에서 자란 내 남편은 이런 착한 부모님을 두고도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특히 아버님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떨고는 한다. 이유가 궁금해 몇 번이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짜증이 섞인 “알 필요 없어”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더 물어보려고 해도 혹여나 싸움이라도 할까봐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추측이 되는 것이라면 아버님의 성격이 남들에게 감정표현을 잘 못하여 무뚝뚝하게 보여 아마 내 남편에게 애정표현을 못해주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오늘도 차를 운전하는 남편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아 보인다. 차량 안에 맴도는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보기 위해 남편에게 말을 걸어본다.

“여보 오늘 집에 6개월 만에 가는 건데 표정이 왜 그래?”

평소 집에 가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대답이 궁금했다.

“그냥...싫어”

더 이상 대답하기 싫다는 듯이 짧고 굵게 대답이 돌아왔다.

다시 어색한 분위기는 차량을 맴 돌았고 어느덧 시야에 시덥이 들어왔다. 집 앞 마당에 차를 대자마자 아들의 차 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반기고 계셨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님” 하고 어머니를 안았다.

“밖이 춥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방에 계신 아버님께 인사를 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고향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항상 시덥에 오면 남편은 집에 붙어있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겠거니 하며 어머니와 그동안 쌓여 있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옆집 이웃얘기, 화장품 얘기, 시사얘기 등 대한민국의 어느 아줌마 남부럽지 않게 수다를 떨었다.

어느덧 밖에 있던 해는 지고 어두워져있었다. 항상 저녁시간에는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는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놓고 보니 불안한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 또한 걱정이 되어 야채를 썰던 손을 멈추고 멍하게 앞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렇게 1시간...2시간이 지나고 저녁밥상 앞에 모두가 앉아 있을 때 문자한통이 왔다.
‘나 오늘 외박할거야’

가족 모두가 이 문자를 보고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님은 혀를 차며 한 마디를 하셨다.

“후/레자식..”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으니 금방이라도 체를 할 것 같았다. 그리고는 오늘만큼 남편이 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식사가 다 끝난 후 나는 어머님에게 다가가 어렵게 남편에 관련된 얘기를 꺼냈다. 어머님은 가만히 멍하게 계시더니 곧 방에 들어가 앨범하나를 가지고 나오셨다.

“그건 그이의 어렸을 때 사진인가요?”

“그래 애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렇게 차갑지 않았단다.”

어머님은 앨범을 여시더니 손가락으로 사진을 집으시며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 남편이 보여줬었던 앨범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사진들이었다.

“이건 아들 녀석이 5살 때였지. 이때 지 아빠와 낚시를 갔었지. 잡혀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놀다가 물고기가 강에 빠졌는데 그걸 다시 잡아오겠다고 물속으로 뛰어 들었어 애아빠가 수영을 못했더라면 아마 그 녀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사진 속 남편은 팬티 한 장을 걸치고 평소에 전혀 볼 수 없는 싱글벙글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옆에 계신 아버님도 지금과는 다르게 활짝 웃고 계셨다. 이렇게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평소에 웃음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어머님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어머님보다 먼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어봤다.

“어머님 이 사진은 그이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인가요?”

지금 흰칠하게 큰 남편의 키와는 다르게 그 나이또래의 여자애들보다 작은 키를 가진 남편이 눈에 들어왔다.

“맞아 아들 녀석 졸업식이었지 이때 우린 졸업식인지도 모르고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을 다 받고 있었어.”

“옛날에 가게 운영하셨었어요?”

“그래 국수가게를 운영했지 그 녀석이 안 말해줬니?”

시댁에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국수집 얘기를 들으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어쩌다가 국수집을 그만하시게 된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이 약하잖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게 운영이 무리가 있더구나.”

어머님은 평소에 허리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수술도 여러 번 받으신 적이 있으셨다. 남들과는 달리 몸 관리를 잘하시는 어머님이 왜 수술을 받으시는지 몰랐었지만 오늘에서야 옛날 가게일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 그때 졸업식인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손님들이 국수를 먹으며 수다를 떠시는데 그 내용 중 우리 아들이 있는 학교가 오늘 졸업식이라고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지.”

“그럼...그때 가게는..?”

“음식을 먹지 않고 있던 손님들에게는 사정사정하며 돌려보냈고 음식을 먹는 손님들은 돈을 안 받고 돌려보냈지 그때 이후로 가게 평판이 안 좋게 되었지.”

“옛날에 아버님은 형사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아버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이는 오지 않았어. 그때 잠복수사 중이었거든.”

졸업식에 오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며 부모님을 기다렸을 남편을 생각하면 서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옆에는 키가 좀 더 큰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교복을 보니 아마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았다. 이때부터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님 이때 그 사람이 몇 살 때 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구나. 이때 친구들을 잘 못 사귀어서 성격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지 활발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없어지고 차갑고 이기적으로 변해버렸단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었나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야 학교폭력문제로 나도 학교에 참 많이 불려갔었지.”

남편이 어렸을 때 요즘말로 ‘일진’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마냥 순수하고 화만 툭툭 내는 줄만 알았던 남편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머릿속에서 시각화되었다. 어머님과 앨범에 붙어있는 사진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가 남편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참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른 사진을 보기위해 앨범을 넘겼다. 하지만 뒷장에는 남편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붙어있지 않았다.

“어머님 왜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은 없는 건가요?”

“그게...말이다.”

어머님은 한숨을 한번 푹 쉬시더니 입을 어렵게 여셨다.

“아까 중학교 때 이 녀석이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고 했잖니. 친구 중 한명이 사람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단다. 친구를 위해 애는 그 사실을 덮어주려고 했었지. 어린 녀석들이 정말 치밀하게 뒤통리를 했었단다.”

어머님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멍하니 있었다. 입술은 저절로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남편이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정신이 들자 남편이 대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어머님 솔직히 저 지금 무서워요. 남편이 살인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커피를 가져오셔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 녀석 친구는 다른 학교 학생과 싸움을 하다가 칼로 찔려서 사람을 죽여 버렸지. 그 애는 이를 어떻게 수습해야할지를 몰랐었고 보통 TV에 나오는 범인들과는 달리 미흡하게 뒤처리를 했지. 그리고 이 사실을 자기와 가장 친한 네 남편에게 말했단다. 아빠가 경찰인 탓인지 어떤 식으로 뒤처리를 해야 경찰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단다.”

“설마 그이가 뒤처리를 도와 준건가요?”

“.....그래”

나는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갔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남편이 이런 일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

“처음에는 실종사건으로 시작되었지. 며칠이 지나도 그 학생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단다. 처음에 뒤처리를 했던 것이 미흡했던 탓인지 혈흔이 발견되었고 곧 이 사건은 형사들이 살인사건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

형사들이 조사했다는 말을 듣고 ‘설마’하는 생각이 들었다.

“설마 그 사건을 아버님이 조사하신건가요?”

“그래 맞아 그때 그이는 강력계 팀장이었어. 학생의 혈흔과 주변 사물들을 통해 단서를 찾아냈지. 사건의 범인은 같은 학생이라는 것을 추리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단다.”

목이타서 어머님이 가져오신 커피 잔을 들었다. 커피는 차갑게 식어있었다.

“먼저 죽은 학생의 주변인물부터 조사를 했단다. 그 학교 학생들에게 묻고 물어 그 날 죽은 그 애의 행적을 전부 찾아냈지. 몇몇 학생들이 아들 녀석의 친구와 그 애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다. 애아빠는 그 친구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아들이 있는 학교로가 그 애를 경찰서로 소환했지.”

“그럼 확실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것 아니었나요?”

“나도 그런 줄 알았단다. 하지만 그 친구와 아들 녀석이 서로 말을 맞추어 둘이 따로 약속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애기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공범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애아빠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단다.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 말을 못 믿어주겠니? 그렇게 그 친구는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단다.”

아직 애를 낳지는 않았지만 나라도 자식을 믿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것을 이용한 남편이 더욱 무서워졌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사건의 진실이 풀리게 된단다. 우리 동네에 있는 김 씨 아저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을 때였지. 땅에 시체를 묻기 위해 땅을 파는데 그 학생의 시체가 발견되었단다. 어려서 그곳이 양지라는 것을 몰랐던 그 친구는 최악의 실수를 했던 것이지.”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시체의 지문검사를 통해 그 친구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단다. 친구는 재판을 통해 감옥을 가게 되었고 네 아버님은 범인을 잡았지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 자신의 아들이 범죄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

남편이 왜 이 동네에 오기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알 수 없었던 사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의 사랑에 대해 불확신이 생겼다. 남편이 무서웠다.

“결국 아들 녀석의 죄를 애아빠가 책임지고 형사 직을 사퇴하게 되었지. 우리가 다 자식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것이야. 물론 애도 그날 이후 정신 차려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너도 만나서 결혼을 했다지만 과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 네게 언제 어떻게 말을 해줄까 고민하고 있었던단다.”

“어머님...그이가 아버님에게 감사해야하는 거잖아요. 왜 아버님과의 관계가 그리도 안 좋은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기를 구제해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으니 말이다.

“네 아버님은 그날 이후 술을 항상 옆에 끼고 살았다. 집에 들어오면 아들 녀석부터 찾고 취기에 때리기부터 바빴지. 그럼에도 네 아버님은 아들 녀석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했다. 아니, 기대를 한만큼 실망이 컸다. 경찰에서 퇴직을 했음에도 아들을 대학에 보내겠다며 인력소를 뛰어다닌 사람이었어.”

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버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아버님이 그렇게 헌신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지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린다는 것에 아버님을 미워했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님과 얘기가 끝난 후 침대에 누워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까들은 얘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당장이 걱정되었

다. 남편을 만나 무슨 말부터 꺼내야할지 생각했다.

창문을 보니 어느덧 해는 다시 뜨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나는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남편 앞에서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웃는 얼굴로 물어봤다.

“여보 여태까지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옛 친구와 술 좀 먹었어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거든.”

옛 친구라는 말에 괜히 물어보고 싶지 않았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불안함 때문이었다.

“여보 술 좀 깬 다음 아버님께 가서 인사 좀 드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 깨끗이 씻은 후 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둘의 이야기가 궁금해 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 아버님의 낮은 목소리가 조금씩 들렸다.

“그래 그 녀석을 만나고 온 것이냐.”

“아버지가 제 친구에 대해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남편의 대답이 매우 차갑고 어둡게 느껴졌다. 어제 어머니와 얘기했던 그 친구라고 생각했다. 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서 문에서 도망치듯 떨어졌다. 곧 표정이 안 좋은 남편을 볼 수 있었다. 문안에서 아버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늘따라 유독 아버님의 모습이 고독해보이셨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재판위에 올렸어야 될 무게감, 그리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아들을 지킨 부모의 입장. 이 모든 것을 남편은 알아주지 못했다.

결국 남은 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원망이었다. 거실로 걸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어린애로 보였다. 그리고 나 또한 고독함을 느꼈다.

✱

批評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김 예 지

- 인생을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문장을 한번쯤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노래 가사로도 나왔었고, 많은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싫든 좋든, 해야 되는 일이면 즐기는 게 훨씬 좋다.’ 라는 메시지를 이 영화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대2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적성과 상관없이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선호하여 성적 경쟁에 내몰리는 신세를 뜻합니다. 이렇듯 몇몇의 대학생들이 인생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고 재미 역시 못 느낍니다. 대학생들 예시로 들었지만, 대학생들 비롯하여 몇몇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역시 월터라는 주인공이 초반에는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보낸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인생이 바뀝니다. 한 사진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을 보면서 ‘경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영화를 다 본 후에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월터라는 소심하고 상상 속에서만 당당했던 주인공이 여행을 다니면서 점차 할 말은 하고, 당차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상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행을 하면서 상상 속에서만 유쾌했던 월터의 모습이 실제로도 많이 보여 보는 저까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행 전의 월터가 세릴이라는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에게 보드의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월터가 보여주기 식의 보드를 탄 반면에, 여행 도중에 월터가 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장면은 회사의 모습과 반대인 월터 자신의 자유를 했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월터의 유쾌함이 잘 드러났습니다. 당당해진 월터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영화 초반에 월터의 모습은, 하고 싶은 농담도 던지지 못하고 무뚝뚝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월터의 상상 속에서는 히어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애인이며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지금 여행을 다니는 월터가 상상 속에서만 존재 했던 월터의 자아를 표출하게 됩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자신과의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여행의 목적은 ‘일’로써 해야만 하는 의무였지만 점차 사람을 만나고 특별한 경험을 겪으면서 월터 자신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재미를 느낍니다. 바로 색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색다른 경험을 겪는 것입니다. 월터는 일 때문에 여행을 갔지만, 여건만 된다면 여행을 가거나 혹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생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의 원동력으로써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만합니다.

- 월터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25번째 사진

출판 업계에서 일하는 월터는 한 고객인 손에게 필름현상을 의뢰받습니다. 그러나 의뢰받은 사진들 중에서 삶의 정수라고 한 25번째 사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진을 의뢰한 손을 찾으러 해외여행을 다닙니다. 끝내 손을 찾아서 사진의 행방을 묻고 알게 되는데, 정작 사진은 손이 월터에게 선물해준 지갑 속에 25번째 사진이 있었습니다. 파랑새와 같은

이치였지만 손이 의도한 바를 월터가 잘 수행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이 보낸 25번째 사진을 제외한 여러 장의 사진들을 분석하여 손을 찾으러 다닌 것인데, 그 중에는 월터의 집 안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갑에 25번째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월터는 과거에 그 지갑을 집 안 휴지통에 버렸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버린 지갑을 챙겨두었고, 25번째 사진을 찾게 됩니다. 월터는 손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을 만나 월터로서의 삶을 보냈고, 가족의 애도 맛보았습니다.

월터는 25번째 사진을 볼 수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월터는 삶의 정수가 무엇인지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삶의 정수란 ‘나’, 즉 순간순간을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월터 자신이 회사 앞 분수에서 25번째 사진을 찾기 위해 나머지 사진들을 분석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뜻은 자신이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여 해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 월터를 포함한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도, 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손이 삶의 본질을 나타낸 사진이라고 하고 월터의 사진을 보내줄 만큼, 월터와 손의 연결고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편지나 월터의 어머니를 통해 살짝만 보여주었지, 직접적으로 친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진이 무엇인지 추측하기 힘들었던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25번째 사진을 제외한 남은 사진들 중에 월터의 집 사진도 있었는데, 이때 월터 모르게 사진을 찍었다는 것과 굳이 여행을 하라고 월터에게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지 않고 여행을 하러 같이 다닐 수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 삶의 주인

월터는 회사 안에서 꼭 박혀 업무에만 집중합니다. 다양한 경험도 하지 못했고, 주어진 업무만 하면서 그저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앞부분만 봤을 때, 이러한 주인공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 지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월터에게 ‘25번째 사진’을 찾기 위해 능동적인 여행을 다니며 변화가 생깁니다. 월터는 원래 종종 상상할 때마다 가만히 상상에 잠기곤 했는데, 현재에 본분을 다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만큼 상상도 안하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현재 삶에 흥미가 없으니 상상을 함으로써 현실 도피를 했었는데, 즐거운 일을 겪으니 굳이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을 가장한 여행, 일탈, 휴식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신한테 충실할 때가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여기서 월터가 여행을 떠났지만, 때때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휴식을 취해 삶이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친구나 가족이 아닌 나 자신이 삶에 의욕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터는 상상을 자주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좋아하는 여자인 세릴과 데이트하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인사 한마디를 못 건 내고 있습니다. 25번째 사진으로 인해 출판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을 때, 월터는 사진을 찾으러 여행 다니기에 부족한 정보를 걱정 부서인 세릴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세릴과 자주 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릴과 나란히 걸으며 끝이 납니다. 월터는 직장을 잃었지만,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다. 진정한 삶이란 주변에 얽매이는 것 보단 나 자신이 축이 되어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연애나 행복 등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따라 나옵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삶에 대해 만족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듯이 월터는 마냥 얻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잃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잃은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얻는다면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월터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자신의 자아를 찾게 되는 기회로 바꿉니다. 비록 월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잃었지만, 과정에서 만큼은 누구하나 부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로 향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입니다.

- 아쉬운 점

초반에는 30분이 넘도록 영화에 진전이 별로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영화를 끝까지 보다보면 앞부분과 뒷부분 연결이 잘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큼은 잘 구성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연애사이트에 ‘특별한 경험’칸을 못 적어서 좋아하는 여자인 세릴에게 사이트상에서 조차 호감표시를 못하였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연애사이트의 ‘특별한 경험’칸에 적을 거리가 생겼다는 것 뿐입니다. 이게 영화의 결론은 아니지만 처음과 마지막만 보자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연애사이트의 ‘특별한 경험’칸에 적는 것 보다 오히려 탈퇴를 해서 연애사이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릴과 나란히 걷는 걸로만 끝났는데, 세릴과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해주었으면 이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줄었을 것입니다. 월터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라면 영화를 봤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화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지만 너무 영화 같은 설정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월터가 여행에 다닐 때 친절한 조력자들만 나온다는 점, 주인공은 경비 걱정 없이 여행을 한다는 점 등 여행의 장점만 극대화해서 보여줍니다. 월터의 인생을 바뀌게 한 원인으로써 긍정적인 일들로만 가득하게 해도 좋지만, 험난한 일 들을 겪으면서 성숙해진 월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터가 간 나라들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게 되는데, 즐거운 여행만 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에서 4단계 여행금지로 해놓은 만큼 위험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안전하게 귀국하고 친절한 조력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등장인물 간의 관계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영화의 내용에서 월터가 자신의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 손과의 사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월터와 손이 함께 보내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거나 앞부분에 보여주면서 이렇게 깊은 사이였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손이 25번째 사진을 일부로 뺐고,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사진에 힌트를 주었다는 것은 월터보고 자신한테 찾아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월터의 여행은 손이 월터가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손이 왜 이러한 의도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삶의 정수라고 한 사진은 손이 의뢰를 하고난 후인데, 손이 의뢰를 하기도 전인 예전에 선물해준 지갑 안에 있었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영화로써 멋진 장면, 대사들이 많긴

하지만 섬세한 구성에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된다면 영화가 깔끔하고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 영화가 말하고자 한 것

월터는 상상 속에서는 히어로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못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월터가 삶의 정수라는 사진을 찾기 위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을 겪습니다. 현재에 즐거움을 찾지 못해 상상 속에서만 살아있던 월터가 현실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소심했던 월터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월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목의 뜻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영화가 시작될 때 연애사이트에서 세릴에게 호감 표시를 하려다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마지막은 세릴과 함께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듯 단순히 보면 사랑이지만 내면의 자신을 만나면서 달라진 월터가 되어 세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월터는 자신도 알게 모르게 여행을 다니면서 세릴에게 일 정보를 부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당장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촉박함을 기회가 되게끔 하는 월터의 시작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힐링 영화로써 마음이 평온해지고 치유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장면, 명대사들이 많고 성장영화, 교훈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터가 손을 찾아 만났을 때, 손은 사진작가로서 눈 표범을 사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 표범이 나타났는데, 막상 손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월터가 묻자 손이 “가끔은 안 찍을 때도 있다 정말 멋진 순간에 나를 위해서 이 순간에 머물 뿐”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각도, 빛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안 찍고 감상을 한다면 카메라를 통해 보지 않고 실물을 보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손이 의도해서 월터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데, 그 이유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초반의 월터는 재미있는 농담도 하나 못 던지고 상상 속에서만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직무를 가졌기 때문인지 월터 역시 사람들과 재밌게 어울리고 싶어 하지만 상상으로 욕구를 충족합니다. 이런 월터에게 손은 눈 표범을 본 후, 밑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자고 권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손을 월터는 필요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조력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손은 월터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살면서 도움을 받기도하고 조력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한번쯤은 생깁니다. 이때 자신이 얼마나 호응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얻어가는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핵심인 25번째 사진은 월터가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으로, 영화 초반의 월터 같이 현실을 도피하고 상상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속의 월터는 월터를 포함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월터가 아닌, 자신이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해석이 됩니다. 손은 월터에게 삶의 정수라고 하며 월터가 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담습니다. 손이 멀리서 월터를 응원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역시 당신을 응원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암

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상상 속에서는 누구나 밝고 재밌는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과 대비되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도 상상과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힘을 북돋아줍니다. 비록 영화로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지만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사고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자신이 중점이 되어 삶을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정수가 자신이 되어 모두가 삶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삶의 정수란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영화로써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헝그리(헝거), 가난한 사람들의 게임 헝거 게임

임 찬 영

- 글을 들어가기 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났을 때였다. 윤리 교과 선생님께서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영화를 보여주시곤 했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이다. 헝거 게임은 시리즈로 영화가 개봉되곤 했는데 1편이 재미없었다는 남들과는 달리 필자는 1편이 재밌었기 때문에 모든 시리즈를 전부 챙겨봤었다. 영화로 그치지 않고 소설로도 헝거 게임을 구독했다. 많이 본 만큼 헝거 게임의 비평을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이 글을 쓴다.

- 왜 ‘헝거 게임’이 만들어졌는가?

작품을 상영하다보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판엠’이라는 독재국가가 설립된다. 판엠의 수도인 ‘캐피톨’을 제외한 나머지 12구역은 부유한 캐피톨과는 달리 하루하루를 아슬하게 버텨내는 빈민한 삶을 보여준다. 전쟁이 없는 판엠의 국민들은 의, 식, 주의 욕구를 이미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희를 중요시 여긴다. 또한 이들은 12구역 사람들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위한 수단으로 매년 헝거 게임을 개최한다.

영화를 관람하다 보면 그 많은 구역 사람들이 왜 당하고만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는 판엠의 캐피톨의 경기장 시설이나 사람들의 의상 등 과학시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다. 군용장비도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들 말고도 헝거 게임은 국가에서 주최하는 매년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판엠의 헝거 게임과 로마제국의 콜로세움의 차이점

헝거 게임과 콜로세움의 차이점을 알고 헝거 게임에 집중하면 좀 더 쉽게 글을 이해할 수 있다. 헝거 게임은 1년에 한번 씩 각 구역에서 남, 여 1명씩 제비뽑기를 통해 선발하여 전투훈련을 일정기간 동안 받은 후 우리나라의 TV쇼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된다. 과거 노예나 전쟁포로를 서로 무작정 결투를 시키는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과는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판엠의 국민들은 로마 제국의 국민들과는 달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결투를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그들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광고를 찍는 등 즉 현재 우리 연예인들과 비슷한 대접을 해준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로마 제국은 콜로세움에서 일어나는 전투만을 즐기는 것이고 판엠은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전투뿐만 아니라 TV쇼를 통해 선수들의 팬층을 만들어낸다.

왜 과거 로마 제국과는 달리 선수들이 전투뿐만 아니라 굳이 TV쇼에 출현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과학기술발전 정도에서 볼 수 있다. 판엠의 과학기술은 현재 우리의 향후 10년 후 기술이라 봐도 무방하다. 굳이 우리가 판엠에 살아보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로마제국과 비교를 해도 쉽게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의, 식, 주거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각 집마다 TV가 꼭 하나 씩 있다는 것을, 또한 사회적 개념의 신분은 존재하지만 법적 개념의 신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신분제가 있었던 로마 제국과는 달리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여가를 즐기며 살며 전쟁과 복지의 문제에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시대이다. 때문에 과학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매체를 접하며 많은 정보를 얻으며 살아간다. 과거 로마 제국과 같이 단순히 전사들이 싸우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때문에 판엠의 헝거게임은 경기 전 화려한 TV쇼와 의상을 이용한 각자의 소개를 관중들에게 보임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는 곧 경기의 주최인 국가가 이득을 얻을 것이며 헝거 게임의 진짜목적인 각 구역사람들의 반란행동을 저지한다는 목적은 매체를 통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로마는 전쟁준비보다는 유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 선수들은 왜 꼭 치킨레이스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선수들이 게임을 통해 우승을 하게 되면 신이 원래 살고 있던 빈민한 구역과는 달리 캐피톨의 엄청난 부와 명예, 흡사 연예인과 같은 일종의 스타가 된다. 경기 중 선수들이 서로 협력하여 우승자는 한명이라는 룰을 깨버릴 수 있지만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 룰은 깨지지 못한다. 또한 2명 이상의 공동 우승자가 안 생기게 하기위해 경기장의 환경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놓는다.

흡사 랩퍼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쇼미더머니’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협동 미션에서 각자의 욕심 때문에 미션을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쇼미더머니’는 모두가 놀랄만한 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흙탕’ 결투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도 ‘쇼미더머니’가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었다.

- 주인공 캣니스와 피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통게임과 달리 위에서 말했듯이 헝거 게임은 각 구역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다. 헝거 게임은 매년 우승자가 단 한명밖에 탄생하지 못한다. 각 구역에서 2명을 선발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게임임에도 같은 구역 사람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캣니스와 피타를 관찰하면 처음 캣니스와 피타는 서로 다른 팀으로 갈라지게 된다. 각 팀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치킨레이스를 하며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의 인원은 점점 줄어든다. 우승자는 단 한명이라는 조건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같은 팀에서 배신을 하는 일이 당연히 여겨진다. 운 좋게 살아남은 피타는 캣니스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서로 힘을 합쳐 최후의 2인으로 남게 된다. 최후의 1인만이 우승자라는 법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둘이 자결을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둘은 최초의 공동 우승자가 된다. 유래 없는 일에 캐피톨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캐피톨의 귀족들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서

로 죽일 수 없는 사랑하는 남녀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버린다.

그러나 방송을 보던 각 구역의 사람들은 반란의 희망을 가지기 시작한다. 캣니슨과 피타는 영화 속에서는 반란의 상징이지만 필자는 조금 다르게 본다. 필자는 이 소녀와 소년이 불안정한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는 전쟁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메시지를 남기는 느낌을 받았다. 솔직히 영화 속에서 반란군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미 독재정치를 수립한 판엠의 기술력 높은 무기들을 상대로는 절 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위에서 말했듯이 전쟁지역 청소년들의 불안정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 같아 아쉬웠다. 보통 영화 속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의 나이또래는 학업에 열중하고 있거나 집에서 컴퓨터 게임과 누워서 TV를 보는 등의 유희를 즐긴다. 그에 비해 형거 게임의 선수들은 활을 다루거나 칼을 능숙하게 쓰는 등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자책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

- 미국에서 흥행한 형거 게임이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는 미국의 역사와 정서를 보면 된다. 미국의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에 속한다. 그들은 ‘박애주의’, ‘청교도 정신’이라는 개척과 정복, 사랑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콜롬버스의 대륙 발견이후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땅을 빠르게 개척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에게 식민지화 당했던 시절에 독립운동을 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청교도 정신은 국민들의 정서에 들어박힐 수밖에 없다.

영화 속 판엠과 12구역 사람들의 상황을 보자. 독재국가인 판엠은 매년 12구역 사람들 24명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유희를 위해 싸우라고 명한다. 이는 각 구역의 사람들에게 반란의 생각을 저지하기 위한 게임이다. 캣니슨과 피타에 의해 보기 좋게 게임은 구역사람들에게 반란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끝을 맺는다. 이는 미국의 청교도 정신과 이어져있다.

옛날 자신들이 영국에 지배당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공감을 하기가 매우 쉽다. 또한 캣니슨과 피타의 사랑의 메시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박애주의 정서에도 포함되는 스토리이다. 때문에 미국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형거 게임을 보지 못하면 이야기를 끝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형거 게임의 흥행 수는 60만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영화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나라이다. 보통 영화의 흥행 수는 500만을 넘을 정도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 성공한 형거 게임이 왜 한국에서 흥행 수 60만이라는 실패를 겪은 것일까? 나는 솔직히 이 영화가 미국보다는 한국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다. 과거서부터 계속되는 침략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 미국보다 많으면 더 많이 아픔을 겪은 우리 조상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런 아픔보다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장유유서 사상, 제사, 인의예지 등 유교적 관습의 전달이 더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이런 유교적 관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설과 영화를 비교한다. 형거 게임의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한다. ‘원작을 망쳤다.’ 소설은 소설로 영화는 영화로 평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영화가 소설만큼 재밌지 못하면 영화는 영화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예는 웹툰에서 영화로 상영한 패션왕과 같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

패션왕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이다. 네이버 웹툰은 각 요일마다 연재되는 웹툰이 달랐는데 패션왕이 연재되는 날은 항상 패션왕이 인기 순위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만큼 인기 있었던 패션왕이 완결된 후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큰 기대를 가지게 했다. 하지만 웹툰의 스토리를 살리지 못했고 각 배우들의 연기들도 어색했다는 평을 받았다. 오히려 영화보다는 시트콤으로 상영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형거 게임도 소설로 엄청난 이목을 끌었던 작품이다. 영화로도 큰 이슈가 되어 흥행하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설과 영화를 관계 지어 보기 때문에 흥행이 어려웠다.

– 형거 게임의 장르 애매성

형거 게임은 다른 액션영화와는 달리 화려한 CG(컴퓨터그래픽)처리도 없고 액션신이라고는 할을 쏘는 것이나 창을 던진다는 등 간단한 액션만을 보인다. 소설을 읽은 나로서는 화려한 CG처리와 영상미를 기대했다. 하지만 영화 속 형거 게임은 액션 보다는 각 캐릭터들의 대사를 통해 형거 게임의 디테일한 면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영화 초기에 나오는 캣니슨의 고향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사랑의 애매한 경계에 대해 풀어냈다. 그와 동시에 피타를 보여줌으로써 피타와 캣니슨과 고향친구의 삼각관계의 복선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했다. 영화 속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캣니슨과 피타의 사랑의 갈등에 대해 깊이 다뤄지지 않는다. 피타가 TV쇼에 나가 캣니슨과 자신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밝힌다. 이는 사랑을 통해 경기 중 스폰을 받으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한 후 피타와 캣니슨은 영화 초반에서 보인 수단으로써의 사랑이 아닌 진심어린 사랑을 하게 된다. 이는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을 보여줄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계기로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가?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행동과 대사가 없다는 것이 흠이다. 그 과정이 소설에는 있지만 영화 속에는 표출되지 않는다. 때문에 형거 게임은 액션 장르로도 미흡하고 로맨스 장르로도 미흡하다. 영화를 보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들로는 장르를 확실하게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결론

12구역 사람들의 반란 행위를 막기 위해, 캐피톨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 만들어진 형거 게임은 우리의 미래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오로지 활과 창, 칼등을 이용하여 싸운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옛 로마제국과 비교할 수 있다. 단지 사람들의 여흥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이다. 기술이 발달된 총으로 서로를 쏘 죽이면 경기도 금방 끝날뿐더러 재미도 없을 것이다.

경기 전부터 TV쇼를 통한 팬 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을 늘려간다. 선수들은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에게 스폰을 받으며 경기 중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는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요대전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등에서도 나타나는 양산이다.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는 치킨레이스를 펼쳐가며 욕심 때문에 서로를 죽이며 결국 모두가 죽는 결과를 보여준다. 경기의 규칙 중 단 한명만이 게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확률로 계산하면 24분의 1의 확률이다. 유일하게 캣니슨과 피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생존에 목적을

두어 우승자가 두 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12구역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며 영화 속 청소년들의 불완전한 성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헝거 게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흥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관습과 미국의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헝거 게임의 원작인 소설보다 영화를 잘 살리지 못함으로 대중들의 아쉬움은 배가 되었다. 헝거 게임의 장르는 액션이라고 소개되는데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액션은 10분채 되지 않는다. 화려한 CG또한 기대를 할 수 없다. 소설의 장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을 가진 영화 속에서 풀어내려하니 각 캐릭터의 대사를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표출해낸다. 때문에 이런 모습이 어색해 보일 수 밖에 없었다.

또 헝거 게임에서 액션보다는 로맨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화 초기에는 수단으로써의 사랑을 보여주며 영화의 절정부분에서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한다. 하지만 수단으로써의 사랑에서 진심어린 사랑으로 변해가는 계기라는 것이 없다. 이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는 우리 현실과 많이 닮아 있다. TV속에서 나오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 노래로 대결하는 프로나 랩,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눈치를 보가며 소개팅을 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었다. 대중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즐거움을 얻는다. 현재 휴전상태인 지구촌은 의, 식,주가 보장되는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영화 속 헝거 게임의 경기와 같은 맥락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헝거 게임을 보며 액션보다는 위에서 말한 면에서 공감하며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인간보다 인간다운 히어로 데드풀

김 영 운

- 데드풀, 기존과는 다른 히어로물의 등장

<데드풀>은 개봉하기 전 부터 상당히 기대했던 영화였다. 마블 코믹스 만화인 데드풀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궁금했고 또 액션 영화와 히어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에 개봉일 만을 기다렸다. 그에 맞게 원작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다. 특히 데드풀은 연극에서나 볼 수 있는 방백을 영화에서 시도한 점에서 가장 흥미를 끌었다. 데드풀의 이러한 특징은 이 영화를 보면서 다른 영화와 다른 가장 뚜렷한 개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다. 극중 데드풀은 자신의 입장과 현재 상황을 관객과 소통하며 영화를 진행시킨다. 그리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던 데드풀이 말할길 “ 제4의 벽 안에서 제4의 벽을 뚫으니깐 그럼 난 16벽을 깬 거잖아?”라며 말하는 장면에서 라이언 레이놀즈의 익살스러운 연기가 데드풀의 4차원적인 면모와 어울려 영화에 몰입하며 보게 되었다.

사실 데드풀은 기존과는 다른 히어로 영화이다. 사람들이 흔히 아는 히어로 영화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구하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타인을 구해내는 영화가 보편적이다. 하지만 영화 데드풀에서의 데드풀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살인을 일삼으며 야한 농담을 한다. 이것만 봐도 확실히 기존과는 다른 히어로임을 알 수 있었다. 데드풀은 정의감은 없고 유머감각은 있는 이상한 ‘안티 히어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드풀은 오히려 히어로들이 정의로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고 느꼈다. 극중에 히어로 집단인 엑스맨들이 데드풀에게 엑스맨으로 활동하자고 권유하는 장면이 나온다. 데드풀은 이를 거절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슈퍼 하지만 히어로는 아니지~”라고 말이다. 굳이 데드풀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자면 악당을 처리하는 악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악당이 아닌 시절이 있었다.

데드풀은 원래 웨이드 윌슨이라는 퇴역 군인이었다. 이런 그 에게도 연인이 있었는데 바네사라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여자였다. 웨이드 윌슨은 퇴역 군인들의 일거리를 찾아주는 술집에서 그녀를 보자 자신의 불우한 과거들을 떠올리며 그녀의 마음속의 상처들을 치유해주려는 듯 자신의 불우한 과거를 나열하여 말해주며 그녀에게 구애를 한다. 이러한 장면에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극중 웨이드 윌슨은 암에 걸려 그녀의 곁을 떠나고 암을 치유해주며 그 조건으로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시설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 곳은장면체 실험을 하는 불법 연구 시설이었다. 이러한 곳에서 온갖 실험을 당하던 그는 에이펙스 혹은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에게 극한의 고통과 고문을 당하게 받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포가 끊임없이 치유되며 재생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그는 얼굴이 흉측하게 변했다. 자신의 얼굴 때문에 연인인 바네사 근처에는 가지 못했고 술집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가 자신의 얼굴을 흉측하게 만든 프란시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정하기로 한다. 이에 웨이드 윌슨은 용병들이 누가 먼저 죽는지 내기하는 게임인 데드 풀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데드풀이라고 짓게 된다. 복수를 하던 도중 바네사를 프란시스가 납치하게 되고 이에 화가 난 데드풀은 능력자 집단인 엑스맨의 두 명과 함께 바네사를 구하러 가고 결국 구해낸다.

- 데드풀의 흥행요인과 현실

<데드풀>은 청소년 관람불가인 영화이다. 보통 히어로 영화들은 유아,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기 쉽다. 세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에게 동경심을 자극하고 정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이나 영화 흥행을 위해서도 히어로 영화들은 전체 관람가나 적어도 12세 이상 관람가를 적정 연령선으로 맞춰 영화를 제작한다. 하지만 데드풀은 청소년이 관람이 불가능한 'R등급'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고 이에 사람들은 우려했다.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고 어떻게 흥행에 성공할지, 원작을 어떻게 표현해 낼지에 대한 우려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데드풀은 흥행에 성공했고 그 요인 중 하나가 내가 앞서 좋았다고 말한 연기력이었다.

영화 <데드풀>의 주연 라이언 레이놀즈는 코믹연기는 뛰어났지만 히어로 영화에서는 부진했다. 주연을 맡은 히어로 영화 2작품, <블레이드3> <그린 랜턴: 반지의 선택>을 흥행에 실패하며 영화 팬들에게 히어로 영화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혹평을 받게 된다. 2009년 개봉된 <엑스맨의 탄생: 울버린> 편에서는 조연으로 데드풀 역할로 잠깐 나오게 되는데 원작 데드풀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와 역시 히어로 영화에선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풀이 단독 영화화 할 때 적극 참여하여 데드풀 역할을 따내게 되었다. 사실 그는 데드풀 역할에 가장 적합했기도 했다. 오랫동안 만화 원작인 마블 데드풀을 좋아했고 같은 캐나다인이며 키, 몸무게, 나이가 같으며 심지어 홍채색도 일치했다. 이에 영화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는 그에게 데드풀 배역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영화에 몰입하며 환상적인 연기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라이언 레이놀즈가 히어로 영화에서 환상적인 연기력을 보여주게 된 원인은 사실 감독과 각본팀의 노력이 컸다. 영화 데드풀의 감독 팀 밀러는 원래는 시각 효과 연출자로 <토르: 다크 월드>의 오프닝 영상을 제작 했다. 그 후 히어로 영화에 관심이 생겨 마블 히어로 영화계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20세기 폭스사의 경쟁사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각 효과를 담당했다. 하지만 팀 밀러는 시각 효과보다는 영화를 제작하길 원했다. 그래서 데드풀이 단독 영화화 한다고 했을 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인연을 끊고 20세기 폭스사와 함께하게 된다. 팀 밀러가 데드풀의 감독을 맡게 되자 사람들은 <엑스맨의 탄생: 울버린>편에서의 데드풀을 떠올리며 망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팀 밀러는 초보 감독이긴 했지만 마블 히어로중 데드풀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았다. 각본을 맡은 랫 리스, 폴 워닉 두 사람에게 완벽한 각본을 쓰게끔 했고 라이언 레이놀즈에게 하고 싶은 대로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완벽한 데드풀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보다 실질적으로 흥행에 성공한다. 그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극중 데드풀은 “우리는 적은 제작비 때문에 엑스맨을 더 부르지 못 한다” 라고 말한다. 데드풀은 5800만 달러로 영화를 제작했다. 그런데 북미에서만 3억6,300만 달러의 성적을 냈고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의 추가적인 수익으로 인해 제작비에 비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보다 큰 수익을 냈다고 할 수 있다.

- 극중 아쉬운 요인들

만화가 원작인 영화이다 보니까 확실히 아쉬운 점이 있었다. 먼저 극중 '데드풀'의 연인인

‘바네사’는 원래 외모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카피캣’이라는 돌연변이였다. 하지만 ‘바네사’를 그렇게 설정한다면 영화의 스케일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탓인지 바네사를 평범한 여성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웨이드 윌슨’의 과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아쉬웠다. 원작에서는 끊임없이 뇌 속의 암세포들을 죽이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을 반복해 자아가 분리되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여러 가지였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과거에 대한 설명이 일체 없다. ‘바네사’를 만나 과거에 누가 더 불행했는지를 가리는 부분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말만 있다. 만약 독창적으로 ‘데드풀’의 과거를 만들어 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아가 분리되지 않은 데드풀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원작을 망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원작이 만화이다 보니까 다른 점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

또 다른 아쉬운 요인 중 하나는 적은 제작비이다. 앞서 말했듯 적은 제작비 때문에 흥행엔 성공했으나 액션 장면이나 스케일 등에서 경쟁사인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게는 한참 못 미쳤다. 제작비 절감을 위해 많은 엑스맨들 중에서도 CG를 써서 극에 나타낼 수 있는 엑스맨과 그 시리즈에서 보여주지 않은 엑스맨을 뽑아 영화에 등장 시켰다. 외국 영화를 많이 보는 나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았다. 그리고 액션장면 중에서 마지막 액션장면인 ‘바네사’를 두고 ‘에이잭스’와 ‘데드풀’이 싸우는 장면은 정말 내가 본 히어로 영화의 마지막 액션장면중에 가장 스케일이 작았다. 마지막을 장식할 장면에서 지루할 정도의 느낌을 받은 액션장면을 본 나로써 조금만 더 스케일이 컸다면 좋겠다고 느꼈다.

- 극중 좋았던 부분들

영화가 시작할 때 ‘데드풀’이 ‘프란시스’의 부하들이 탄 차를 기습해서 차가 뒤집어지는 장면이 정지화면으로 나오며 스태프 소개가 나온다. 소개부터 데드풀의 코믹함을 볼 수 있는데, 스태프들과 제작사, 주연 배우가 신이 내린 또/라이, 화끈한 걸, 매정한 어린 것, CG 캐릭터, 영국인 악당, 깨알 같은 개그 조연, 쓰/잘데기 없는 카메오, 감독 : 돈만 많이 처받은 초짜, 각본 팀: 우리가 진짜 영웅들이지, 제작 : 개허접 필름, 제작비 지원 : 호/구들 등 등 이런 식으로 나온다. 초기에는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것에 웃었는데 다시 봤을 때 확실히 영화 <데드풀>의 인물들의 특징을 잘 살려 적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스태프 소개가 끝난 후 택시기사 ‘도핀더’와 ‘데드풀’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도핀더’는 원작에서는 볼 수 없는 캐릭터지만 영화 <데드풀>에서는 극의 상황을 이끌며 코믹함을 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도핀더’는 영화 초반부 액션장면의 도입부를 그의 택시를 타고 나서였고, 마지막 액션장면 에서도 그의 택시를 타고 ‘프란시스’와의 결전에 임한다. 극의 초반과 마지막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사실상 맡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도핀더’가 ‘데드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사촌을 납치해 트렁크에 넣었다는 것을 엑스맨 멤버들 앞에서 말할 때의 순수함과 ‘데드풀’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착한 점이 ‘데드풀’과는 상반되는 느낌을 주어 나에게 재미와 흥미로움을 이끌었다. 아마도 이 점을 노리고 ‘도핀더’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영화의 진행이 현실-과거-현실-과거 순으로 반복되는 점이 좋았다. 만약 단지 계속 이렇게 진행만 했다면 자칫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데드풀’의 독백으로 인해 재미있게 표현되었다. ‘데드풀’이 “ 이 영화는 딱 그거야 러브스토리”라며 말한 후 과거

로 넘어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한다. 또 ‘데드풀’이 “진짜 이런 개망신이 또 있을까 싶어” 하면서 과거로 다시 넘어가는데 ‘웨이드 윌슨’이 예전 <엑스맨의 탄생: 울버린>에서 나온 데드풀의 피규어를 옆으로 치우며 과거 이야기가 시작된다. 앞서 말했듯 라이언 레이놀즈는 <엑스맨의 탄생: 울버린>에서 데드풀을 잠깐 연기했었는데 그때의 데드풀은 정말 기존의 마블 코믹스 팬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이언 레이놀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에이잭스가 관리하는 연구시설에 들어갈 때 “슈트는 녹색이나 CG로 만들지 말아줘” 라고 ‘데드풀’이 말한다. 이 장면에서 <그린 랜턴: 반지의 선택>을 떠올리게 되는데 정말 라이언 레이놀즈를 알고 보면 열배는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 된다.

- 영화 데드풀 그 후

영화 <데드풀>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 짧은 쿠키 영상이 나온다. 잠옷 차림의 ‘데드풀’이 “데드풀2 티저 나올까봐? 우린 그런 돈 없어”라고 말하지만 데드풀의 흥행 성공과 엑스맨의 새로운 영웅인 ‘케이블’을 등장시키기 위해 20세기 폭스사는 <데드풀2>를 제작하기로 했다. 완벽한 연기를 보여준 라이언 레이놀즈가 역시 데드풀을 맡았고 나머지 배역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 영화로 MTV영화제에서 최고의 코믹연기상과 최고의 액션연기상을 받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데드풀 하면 라이언 레이놀즈가 떠오르게 되었다. 마치 마블의 아이언맨을 생각하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떠오르듯이 말이다. 이렇게 마블 히어로중 한 역할을 잘 소화한 결과 이제는 히어로 영화계의 마이더스의 손이 아닌 마블의 히어로인 데드풀이 된 것이다.

그런 데드풀의 후속작인 데드풀2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어떤 내용으로 각본이 쓰여 질지 굉장히 궁금하다. 일단 데드풀의 이야기를 더 끌고 나가려면 신들의 이야기도 다뤄야 하고 데드풀이 불사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에피소드를 다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으려면 막대한 제작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엔 제작비를 얼마나 사용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후속작이 데드풀처럼 적은 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면 아마도 영화의 연장에 의미를 두고 데드풀을 그려나갈 것이다. 하지만 많은 예산으로 제작한다면 데드풀의 스토리에 의미를 두고 영화를 제작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 팀 밀러는 데드풀2에 케이블을 리암 니슨을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데드풀과 케이블의 이야기를 담아낼 것 같다.

데드풀과 케이블의 이야기는 이렇다. 케이블은 인류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 데드풀과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 영향으로 데드풀의 신체가 완전히 녹아 내리는 일이 벌어진다. 다급해진 케이블은 데드풀의 신체를 자신 몸속으로 빨아들여 바이러스를 억제시키고 다시 그 신체를 입으로 토해낸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데드풀은 케이블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게 되고 케이블도 싫진 않은지 이를 맞아해주면서 개그 콤비가 결성된다. 아무래도 둘이 같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영화화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데드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데드풀에 대한 총평

데드풀은 알고 보면 슬픈 멜로 영화다. 암에 걸린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능력을 얻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납치해간 남자에게 복수를 하려는 내용의 멜로 영화이다. 데드풀 캐릭터 자체는 코믹하지만 그 코믹함 뒤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느낌을 준다. 고문으로 인해 흉측하게 바뀐 얼굴, 사랑하는 여자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자신을 부정하며 슈트를 입고 복수를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을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었고 이에 크게 좌절하지만 사랑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연인인 바네사가 깨닫게 해준다. 그 후 데드풀은 자신의 사랑을 찾고 행복해졌다. 라는 것이 데드풀 영화의 실제적인 내용이다. 만약에 데드풀에서 코믹함과 방백을 뺐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데드풀 영화를 뻔한 히어로 물로 기억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 까지 그런 히어로 영화들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드풀은 코믹했고, 흥미로운 캐릭터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설명하며 나에게 대화를 걸어왔다. 나는 데드풀이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라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 하려는 것만 같아 영화에 더 깊게 몰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데드풀의 코믹함 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데드풀을 흔히 재미있는 ‘킬링타임용 영화’ 라고 표현한다. 만약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그저 재미로 데드풀을 봤다면 한번쯤은 데드풀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느껴보라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만 재미만 주는 영화가 아닌 한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들은 셈이니 말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의 스토리가 죽은 인타임

이 단 비

- 시간은 생명이야

시간만 있으면 더 오래 살 수 있고 뭐든 살 수 있다는 영화가 In Time이라는 영화이다. 영화 제목 안에도 있듯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이 사람들은 25살이 되면 자신의 시간이 시작되고 시간을 벌고 시간을 지출해야 한다. 돈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돈을 빌리듯이 시간을 빌릴 수 있으며 빌리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몸에 돈과 생명이란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지하고 다니는 SF장르와 쫓고 쫓기는 액션 이 두 가지 장르를 모두 갖춘 영화이다.

이 영화에는 두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다. 그 두 가지로 In Time에 관심을 가진 것일지도 모른다. 먼저 시간을 생명, 돈으로 대체된다는 소재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그러한 소재가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였다. 시간을 소재로 하는 다른 영화에 비해 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한 것에 아주 놀라워하며 보게 되었다.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포스터에 있다. SF와 액션을 갖춘 영화지만 포스터만큼은 로맨스를 품고 있어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된 것 같다.

포스터에는 아련한 두 남녀가 서로 서있는데 그 중 여주인공은 지금도 유명한 아만다 사이프리트이다. 남자주인공의 팔에 시간이 25초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은 영화의 스토리가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 했다. 또한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총을 겨누지만 쏘지는 않는다는 듯 그의 어깨에 대었다. 이는 그를 적으러 댔다 했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예상하였다. 포스터 옆에는 커피 4분, 버스요금 2시간, 스포츠카 59년이라고 적혀져있다. 시간이 돈으로 쓰인다는 영화의 소재를 아주 잘 나타낸 포스터였다. 영화를 시청하고 영화의 주인공들과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우선 극 중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자면 남자주인공 월 살라스도 빌린 시간도 있고 다시 돌려받아야 할 시간도 있는, 쉽게 말하자면 일상 속 우리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리 빨리 행동하고 영화에 나오는 누구보다 급했는지 그 감정을 더욱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그에 반해 여자 주인공 실리아는 요즘 말하는 금수저인 셈이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 시간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아버지인 필립 웨이스의 모든 돈까지 털어가며 사람들을 돕고 자기의 사랑을 지킨 용감한 여자라 생각된다. 현실에 경찰이 있으면 이 영화에서는 타임키퍼가 있다. 시간을 관리하는 레이몬이라는 경찰. 타임키퍼지만 이 인물 또한 시간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주요 인물 셋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다음으로 내용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빈민가에 살고 있는 월이 우연히 100년을 가진 헤밀턴이라는 사람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월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뉴 그리치로 이사를 갔을 때 거기서 만난사람이 바로 실리아이다. 월은 수배범으로 몰리고 부자집 따님인 실리아도 그를 적대시했지만 무슨 계기로 마음의 벽을 허물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둘은 함께 도망 다니며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들에게 실리아의 아버지인 필립의 회사 시간들까지 다 나눠주며 이야기는

허무하게 막을 내린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시간을 다른 영화랑 다른 방법으로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화들에 비해 대비되는 특징은 없었다. 최신 영화 아수라에 평은 이러했다. 다 차려진 잔칫상에 먹을 것은 많은데 맛이 없다는 것이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와 같은 느낌이었다. 영화배우들, 소재는 매우 좋았으나 그에 맞는 스토리가 나와 주지 않아 아쉬웠다.

-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로는 어바웃 타임, 시간여행자의 아내, 인타임 등이 있다. 인타임을 제외하고 어바웃타임과 시간여행자의 아내를 인타임에 비교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흥미 있게 본 영화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영화의 내용이다. 인타임의 경우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값을 지불하고 0이 13자리가 되면 죽게 되는 내용이다. 어바웃 타임과 시간여행자의 아내는 다른 어떤 물건에 의해서가 아닌 주인공들의 체질에 의해 모두 시간을 넘나들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영화를 선택하였다.

세 영화들이 알려주는 공통점이자 교훈은 '시간은 금이다'라는 것이다. 어바웃 타임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의 맘에 들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다니는 영화이다. 시간여행자의 아내는 시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아내를 만나 자신의 능력을 알려주고 자신에 대해 알려주는 영화이다. 인타임은 시간이 자신의 생명이자 돈이 되어 사고 팔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나타낸 영화이다. 시간으로 명을 다하고 빈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지만 그 점이 이 영화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내용일지도 모른다.

시간을 소재로 한 다른 영화와의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첫째, 인타임에서 시간은 다른 영화에서와는 다른 생각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영화는 시간은 여자주인공과 남자주인공의 만남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이 영화에서의 시간은 금보다 값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그 부각점이 영화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눈에 띄게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은 사는 곳조차 다르고 생활하는 패턴 또한 다르다. 현대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비교하여볼 때 영화에서는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요소들이 아주 많았다. 시간을 소재로 한 다른 영화들은 로맨스에 치중하여 현대사회를 비판하기 보다는 아름다운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그에 비해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 원동력이 되고자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것에 치중하여 영화를 그려내었다는 점이 다르다.

인타임이 현대사회의 원동력이 되어 미래사회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미래사회는 인타임이 되었을까? 두 번째 다른 점이 여기서 나타난다. 인타임은 3가지 영화 중 유일하게 미래사회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었다. 미래사회에서 우리의 모습도 현대와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영화 속 사람들의 물질만능주의 생각이 안타까울 뿐이다.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면 미래시대에는 빈부격차가 사라질까? 돈이면 뭐든 다되는 그런 시대는 없어지는 것일까? 그 생각들 덕분에 이 영화의 미래사회에 더욱 관심이 가는지 모른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몸에 저런 장치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모든 시작점은 의학과 과학이 끝없이 발전함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덕분에 더욱 혼돈에 빠지게 할 수 있었던 영화였다.

- 미래의 모습

모든 사람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예상을 했듯이 의학과 과학은 무조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영화 안에는 100살이 넘었는데도 100년을 가지고 있던 헤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로 인해 불로장생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들다고 할 만큼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는 의학과 과학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불로장생이나 과학과 의학의 발달을 쉽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한다. 헤밀턴처럼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도 정해진 사람의 생애 맞춰야 더욱 시간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알 수 있다.

몸 안에 시간을 가진 시스템도 미래사회에 있을 법한 이야기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스템을 우리의 몸 안에 넣게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고 그에 맞춘 시간체계와 법체계가 정해진다면 영화와 같은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빈부격차는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다수의 죽음도 많아 질 것이다. 아마 현대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모든 수단이 시간 하나로 대체되니 다수의 아픔은 배가 되는 수밖에 없다. 영화 속 정부, 부자들은 자신들이 더욱 더 잘살아가기 위해 그런 체계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달라지지 않은 점도 있다. 돈이면 뭐든 다되는 물질만능주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수단이 돈 대신 시간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부자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때우려 한다. 영화 속 한 장면 중 실리아가 공범이 되자 실리아를 빼내오기 위해 실리아의 아버지가 타임키퍼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 있다는 듯이 말한다. 이 장면으로 역시 미래사회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구나. 그리고 부자들뿐만이 아니라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았다. 시간은행에서 시간이 생길 때 까지 다들 기다렸다가 시간이 있다는 불이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장면. 한편의 좀비 영화라고 해도 될 만큼 돈인 시간에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어 안타까움 마음이 들었다.

- 명대사&명장면

영화에는 미래적인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 명대사와 명장면들도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뽑기도 하고 내가 영화를 봤을 때 아주 좋았던 장면들은 다음 세가지가 된다. 하나만 기억하고 보자면 인타임은 ‘시간은 금이다’라는 것이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고 다음 명대사와 명장면들을 기억한다면 아마 앞으로 1분 1초 소중하게 생각 하며 살게 될 것이다.

‘Don’t waste my time.’ 헤밀턴이 그에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며 자신의 생명과 돈이 되는 시간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월에게 말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어도 그랬을까? 105살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더 오래 살기에는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말. 소수의 영생을 위해 다수가 죽어야 한다는 말도 다 자신의 죽음에 복선을 깔고 있었던 것이다. 도와준 것에 대한 고움도 있지만 소수보단 다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아주 놀라운 사람이다. 결국 그 10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월이 현행범이 되지만 그 말을 잊지 않고 모든 시간을 나눠준 것이 저 대사를 다시금 깨어나게 해주는 역할이었던 것이다.

‘하루면 많은 것을 하지’ 영화 중간 중간 시간이 하루도 없을 때, 누군가에게 시간을 줬는데 하루밖에 안됐을 때 하루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월은 얘기한다. 현실로 따져보자면 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명대사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단 하루를 산

다는 가정만 해봤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의 소중함을 모른다. 과연 사람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루를 침대에서만 아무것도 안하던 나날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해야하는 명대사이다.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아보신 적 있어요?’ 실비아가 자신의 아버지의 큰 시간을 훔치며 아버지께 말한 것이다. 누구보다 여유롭게 살아가며 누구보다 하루하루를 흥청망청 썼을 사람. 실리아는 월 덕분에 하루밖에 남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 때 그동안 너무 여유부리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많은 시간덕분에 여유부리며 영생하기를 꿈꾸는 아버지께 말한 것인데 그 말이 실리아의 아버지한테만 한말일까? 이것 또한 우리들을 겨냥하고 한 말이다. 하루라도 값지게 사람답게 살아본 적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약 5천만 명 중 몇 명이나 될까.

명대사와 명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듯 현대 사람들은 너무나 인생의 소중함을 모른다. 내일 더 잘살기 위해 한 푼 더 벌고 한잠 덜 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날인 것을. 짧지만 많은 의문을 들게 하고 많은 뜻을 가진 명대사였다. 내일이 아닌 오늘. 하루 24도 값지게 보내지 못하는 우리를 겨냥하고 단 하루만이라도 값지게 보내고 많은 것들은 해내길 바라는 감독의 뜻을 모르는 척 하지 말아야 한다.

- 인타임 총평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였던 것 같다. 시간에 쫓겨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고 싶은 것도 잘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삶이 영화 속 빈민가 사람들의 일상과 같았다. 그들이 하루를 살기위해 돈을 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벌기 위해 산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도대체 언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화 속에서는 많은 시간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다 같이 행복해지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영화와 현실사이의 괴리감. 영화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는 못하는 것. 그 점을 감독은 비판하여 영화에 잘 실어주었다. 현실과 비교해서보면 저 시스템에서 사는 것이 현실보다 낫다.

월과 실리아가 시간을 털어 시간을 나눠주는 일을 하며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무얼 나눠줄 수 있을까. 해결책도 주지 않은 채 영화는 끝이 났다. 만약 이 영화가 나름의 해결책을 주었다면 사람들의 평은 달라졌을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 나름대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스토리를 조금 바꿔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월과 실리아가 나눠준 시간을 받고 그들이 어디에 나타나도 조용히 하였다. 근데 만약 정부 측에서 더 큰 돈을 주겠다하고 사람들을 꺾어서 월을 잡았다면 사람들의 그런 욕구에 의해 월을 마음을 몰라주었다면 아마 비판적으로는 더욱 좋은 평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사실 이야기를 더 끝었다면 지금보다 더 흥행에 실패했을 것이다. 비평으로 끝났을 영화를 소수의 영생을 위해 다수가 죽어야한다는 것처럼 이 영화는 많은 스토리는 필요치 않았을지 모른다. 앞서 말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면 영화는 산으로 갔을 것이다. 아마 모든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현실에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감독의 적절한 끝맺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잘 갖춘 영화이기는 하지만 기승전결로 따질 때는 기승결이 된 영화였다. ‘소수의 스토리를 위해 다수의 스토리가 빠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다.

한국형 좀비영화의 탄생

-부산행-

이 혜 원

- 서론

올해 여름, 나는 부산행을 보게 되었다. 올라가는 기온과 함께 각종 매체들을 통해 공포 영화의 예고편을 보며 여름이 다가왔음을 실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 나에게 부산행은 수많은 공포영화 중 하나였을 뿐이다. 언젠가 갑자기 여름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공포, 스릴러물 영화를 알아보게 되었다. 귀신, 유령을 소재로 한 영화가 대부분인 가운데 좀비는 눈에 띄는 소재였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영화를 찾던 중, 어떤 글을 보게 되었다. 부산행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의 유일무이한 좀비영화라고.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좀비영화의 존재를 본 기억이 없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장르를 부산행은 어떻게 소화해내는 지 궁금해졌다. 나는 그 전에 이 영화(부산행)와 비슷한 외국의 월드워즈라는 영화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부산행은 몇몇 장면에서 월드워즈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부산행은 월드워즈와 모든 것이 같지 않고 한국적인 정서를 녹여내 두 영화를 비교하며 보게 되었다. 이는 본론에서 더욱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 등장인물

이 영화는 크게 세 커플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공유와 그의 딸인 김수안, 부부사이인 마동석과 정유미, 그리고 친구사이인 최우식과 안소희이다. 한 사람씩 보자면 우선 공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남배우이다. 이번에 그는 한 아이의 아빠로 등장했다. 공유의 나이를 생각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가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 상황에 맞는 캐스팅이긴 했으나 영화 초반에는 그의 외모 때문인지 아버지라는 설정에 몰입감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적인 연기로 부성애를 잘 표현하면서 캐릭터를 알맞게 살려내었다. 그가 연기한 석우라는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삶을 살지만, 사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재난에 맞서면서 점점 인간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흥미로운 인물이다. 영화 중에서 주인공의 성향이 완전히 변화하는 설정은 흔하지 않아 눈에 띈다. 그의 딸인 김수안은 아직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배우지만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 위상에 걸맞게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연기하면서 일 때문에 자신을 소홀히 하는 아빠에 상처받은 딸 역할을 잘 해내었다.

다음으로 마동석과 정유미 커플에서, 마동석은 직접 나서서 좀비와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특유의 신체조건을 가진 마동석이 연기한 것은 누구나 납득할 만 했다. 그는 영화에서 믿음직스럽고 듬직한 모습 뿐만 아니라 작은 웃음 포인트를 만들기도 하고 마지막에서는 묵직함과 먹먹함도 드러낸다. 이렇게 그는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

는 역할로 관객들에게 더 큰 재미를 부여했다. 마동석은 영화에서 정유미와 부부로 나온다. 하지만 그들은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다. 정유미와 마동석이 외모적인 면에서 어울리지 않아서도 있지만 정유미가 한 아이를 잉태한 역할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점이 가장 컸다. 그녀는 대중들에게 동안, 사랑스러움으로 기억되어왔다. 때문에 엄마보다는 여자 친구 역할이 어울린다. 그녀가 자신의 만삭인 배를 잡고 있는 모습은 매우 이질적으로 다가왔고, 김수안을 챙기는 모습 또한 엄마보다는 언니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절박해 보이는 모습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나는 차라리 이 인물을 배우 배두나가 연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녀는 이미 마동석과 미국드라마 센스8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엄마 역할에 어색함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괴물, 터널 등 다양한 재난영화를 찍어 상황의 절박함을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우식과 안소희는 둘 다 앳된 외모로 학생 역할에 적합했다고 본다. 최우식은 영화 거인을 통해 그 해의 신인상을 모두 휩쓸었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안소희를 친구로서 아낀다는 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안소희를 따라 쫓비가 되는 장면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 안소희의 연기 역시 영화의 몰입을 방해했다. 영화 내용 중 기차의 15번 칸에서 그녀의 친구들이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승객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있다. 다급함과 초조함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장면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냥 몸짓과 대사를 뱉어낼 뿐이었고 긴박한 순간에 몰입력을 떨어트려 아쉬웠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세 커플처럼 선한 역할은 아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의성이다. 그는 기차의 승객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매우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이 인물은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할 때, 인간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 그는 재미있게도 영화가 개봉된 후에 sns에 ‘영화를 그만봐달라’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었다. 이는 1200만 관객이 돌파되면 마동석에게 명치를 맞겠다는 흥행계약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는 영화를 본 관객들이 김의성이 연기한 인물이 처하길 원하는 상황과 같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관객들에게 이 캐릭터에 대한 인상을 더욱 깊게 남기게 했다.

- 기차라는 공간적 배경

부산행의 배경은 기차 안이다. 이 공간적 배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차는 공간적 특성상 매우 좁고 한정적이며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쫓비가 출몰했을 때 넓은 공간일 때와는 달리 숨거나 도망치기 힘들다. 실제로 영화 내용 중 노숙자가 쫓비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 걸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선택한 최선의 공간은 작은 의자 뒤였다. 협소한 공간에 수많은 쫓비가 들끓는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더 큰 스릴감을 안겨주었다. 물론 모든 것이 기차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내리기도 하지만 결국 기차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 쫓비가 돌아다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기차를 벗어나려 하지만 기차 밖에서 쫓비에 쫓겨 다시 기차로 돌아온다는 점도 흥미롭다. 결국 안전한 공간이란 기차의 목적지인 부산,

한 곳 뿐이라는 점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부산에 도착해 당장의 안전은 보장받더라도 대한민국에 도래한 좀비라는 위험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부산이 좀비에 의해 공격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산행은 여전히 절망적이다. 기차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영화에서 나오는 기차역, KTX기차의 모습 모두 실존하는 것들이고 기차의 내부 역시 실제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해 낸 모습이다. 그 안에서 좀비에 공격당하거나 그에 맞설 때 기차의 지형지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결국 이 장치는 우리가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공간을 ‘좀비 소굴’로 만듦으로써 현실감을 부여해 몰입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 무리한 설정

이 영화는 한 인물이 좀비사태를 끝내면서 큰 공을 세우는, 이른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산행은 그러한 ‘영웅’영화보다는 억지스러운 장면이 적다. 하지만 부산행 역시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는 장면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9호차에 있는 남자주인공들이 15호차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에게 가기 위해 좀비를 뚫고 가는 장면을 보면 9호차와 15호차 사이에는 5개의 칸이 있으며 그 곳에는 좀비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팔에 천을 덧대고 야구방망이를 드는 등 나름 좀비의 공격을 대비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과연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인간은 세 명 뿐인데 좀비의 수는 셀 수 없다. 아무리 그들이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좀비를 상대하기엔 무리일 것이다. 심지어 좀비는 방망이 따위로는 죽지 않으며 좀비에게 공격을 당해 굶히거나 물려 상처를 입게 되면 자신도 좀비가 된다. 그 많은 좀비를 뚫고 가면서 상처하나 나지 않고 멀쩡한 몸으로 가족을 만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영화에서 좀비의 달리기 실력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묘사된다. 기차의 목적지인 부산을 가면서 주인공들은 몇 번 기차에서 내린다. 그 때 마다 그들은 좀비를 가까스로 따돌린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어 좀비에게서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몇 개의 장면은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무리가 있다. 기차가 대전역에서 멈추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조심스레 밖을 나간다. 하지만 대전이 안전하다는 말과는 달리 대전역 역시 좀비가 된 군인들의 소굴이 되어있었다. 밖으로 나온 승객들은 모두 좀비에게서 도망쳐야만 했다. 정유미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삭인 몸으로 좀비에게서 도망치기엔 무리가 있을 텐데 영화에서는 그것이 부각되지 않았다. 또한 기차가 대구역에 도착해 부산행 선로의 기차로 옮겨 타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또 좀비에 쫓기게 된다. 이때 공유는 그의 딸인 김수안을 안고 뛰다. 좀비의 달리기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설정 아래에서 초등학교생인 아이를 들고 그들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설정은 다소 억지스럽다.

또 다른 무리한 설정으로는 종길의 죽음이 있다. 영화 중 ‘종길’과 ‘인길’이라는 두 할머니는 천자매사이이다. 이 둘은 대전역에서 혼란 속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후에 종길은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좀비가 된 언니, 인길을 발견한다. 종길은 언니를 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환멸을 느껴 옆 칸의 문을 열어버리고 만다. 이 부분은 감동적인 요소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장면 같다. 하지만 그 전에는 언니와 우애가 깊어 보이는 장면이 없었기 때

문에 인질을 보고 자살을 택하는 것은 관객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좀비가 된 인질이 다른 좀비들과 다르게 눈동자의 색만 다르고 일반인과 다를없어 보인다는 점도 감동을 위한 지나친 설정이다.

– 인간의 속성

이 영화는 좀비의 습격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로 공유와 김의성을 꼽을 수 있다. 공유는 영화 초반에 자신과 딸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인물이었다. 이는 대전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혼자만 알고 다른 승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탈출하려 했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김의성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방패로 삼기도 하는 등 매우 이기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위의 두 인물은 그저 수많은 승객들을 대표할 뿐이다. 승객들은 모두 자신이 최우선이었다. 이 같은 설정은 인간이 최악의 상황과 조우했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타심은 누구에게나 강조되는 덕목이지만 과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든 이가 그런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만을 조명하지 않는다. 영화 초반에 김수안은 아빠인 공유에게는 존댓말을 하면서 엄마와 통화할 때는 반말로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의 말을 쉽게 신뢰하지 않기도 한다. 공유는 아내와 불화로 별거까지 하게 되고, 아이의 생일 때 집에 이미 있는 게임기를 선물하는 등 일에만 몰두하고 가정에는 소홀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와 그에게 존댓말을 하는 딸의 모습은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낸다. 이기적이었던 공유는 본인이 이기적이라는 김수안의 말을 듣고 각성해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고, 그 후로 딸은 아빠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화의 맨 마지막에서 공유가 좀비에 물리고 기차에서 자살을 택하는 장면에서는 김수안이 태어났던 장면이 주마등이 스쳐지나가는 것처럼 연출한다. 이 장면은 좀비 영화와는 어울리지 않고 지나치게 신파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의 부성애가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마동석은 좀비에 쫓기며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와중에 반대편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정유미를 안아 밖으로 뺀다. 좀비로 인해 본인의 생명도 위협받는 상황에 부인과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챙긴다. 또한 그는 좀비가 칸을 연결하는 문을 깨려는 상황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리를 지킴으로서 더 많은 승객들을 구한다. 마찬가지로 안소희는 그녀의 친구들인 야구부 단원들이 아직 다 기차에 타지 못했이라며 기차의 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힘쓴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인 최우식은 영화의 후반부에 그녀가 결국 좀비에게 공격당했을 때, 그녀가 곧 좀비로 변할 것을 알지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옆에 있어준다.

이와 같이 앞서 보았던 인간이 지닌 본능적인 이기심과는 다른 특성의 사람들의 모습은 각자 조금씩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모두 같은 속성을 가진다. 그들은 돌씩 묶여 부성애와 우정을 포함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나보다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가치들을 몸소 실천

하고 있다. 이 인물들은 앞의 인물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 영화 ‘월드워Z’와의 비교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좀비영화가 나오지 않았었다. 그래서인지 기존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어 해외의 좀비영화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 부산행도 마찬가지로 해외의 좀비영화와 비교할만한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부산행과 월드워Z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지 살펴보자면 이렇다. 첫 번째로, 좀비의 기본적인 특성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좀비들이 빛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을 차단하면 좀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 전과는 달리 좀비들의 달리기가 빠른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좀비와 맞서 싸우는 이유가 ‘가족’때문이라는 점도 같다. 부산행의 공유와 월드워즈의 브래드피트는 모두 딸을 둔 아빠 캐릭터로, 둘 다 부성애로 인해 좀비에 대응한다. 세 번째로, 몇 개의 장면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월드워즈에서는 좀비들이 예루살렘 벽을 넘기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가 탑을 만드는 장면이 있다. 부산행은 이와 비슷하게 달리는 기차에 좀비들이 하나 둘 매달리는 장면이 있다. 이 둘은 각각 수직과 수평으로 좀비가 달라붙어 있지만 좀비들이 떼거지로 무언가에 모이는 비주얼이 비슷하다.

하지만 부산행이 해외의 좀비영화의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세세한 설정만은 달리 했는데 첫 번째로, 월드워즈는 말 그대로 ‘영웅영화’이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이 백신을 찾아 좀비 사태를 정리 시키며 마무리된다.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는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혈투를 벌인다. 그 모습은 마치 일반 시민이라기보다는 영웅에 가깝다. 하지만 부산행은 아니다. 이렇다 할 영웅도 없었으며, 영화의 결말에서도 좀비 사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묵숨만 부지했을 뿐이다. 두 번째로, 밀폐된 공간에서 좀비에 감염된 사람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이 다르다. 월드워즈에서는 비행기 안에서 한 여성이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겼으나, 사람들은 인류애를 발휘한 것인지 모르는 체 하며 가만히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부산행에서 기차라는 공간 속 승객들은 감염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들이기 꺼려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다. 결국 월드워즈는 좀비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집중하면서 인간 내면의 선함에 주목했다. 부산행도 마찬가지로 인산의 선한 모습을 담아냈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부조리함을 비판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

– 결론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부산행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 시도된 장르의 영화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 시도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아주 완벽한 영화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좀비는 흔히 볼 수

없는 소재이며 이렇다 할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다. 부산행은 조명 받지 못했던 장르를 영화시장에서 주목받게 하고 그로써 많은 관객을 모았다. 이 영화는 한국형 좀비 영화의 좋은 스타트를 끊어 주었다. 그것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인 기차를 배경으로 잡았다는 점이 꽤나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기차는 박진감을 주는 것을 포함해 관객들에게 좀비라는 소재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몇 개의 무리한 설정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좀비라는 실존하지 않는 소재가 주는 고질병과 같은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타영화와 달리 좀비를 CG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안무가가 안무를 짜고 댄서들이 직접 연기해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고 사실적이었다. 이 점이 중간 중간 허술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장면들을 보완해 영화의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하게 했다. 좀비의 기본적인 외형 및 특성이 외국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한국의 정서에 맞는 설정과 이야기로 부산행만의 특색을 살렸다. 따라서 부산행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좀비영화치고는 선전한 영화라고 본다. 이 영화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하는 영화로 적격이었다. 부산행을 선두로 앞으로 한국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던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제 23회 국어국문학과 글열음 문집

- ◆ 역은이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7대 학생회
- ◆ 펴낸이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7대 학생회
- ◆ 펴낸날 : 2016년 11월 24일
- ◆ 펴낸곳 : 보림에스앤피
- ◆ 주소 :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번지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033-248-1510, E-mail : de1510@hallym.ac.kr)